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이 성 우

부부간의 갈등관리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Conflict Management in Marriage

2002년 8월 일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祉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金 喜 淑

석사학위논문
指導教授 이성우

부부간의 갈등관리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Conflict Management in Marriage

위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년 8월 일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祉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金喜淑

金喜淑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인정함

2002년 8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감사의 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 1-2)

먼저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과 격려로 지켜봐 주시고 가르쳐 주신 황진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해주신 이성우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본 논문을 잘 쓸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이창원 교수님과 정주택 교수님, 정성택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간을 할애하여 통계작업을 위해 수고해준 동생 병기와 울케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설문조사를 위해 애써준 혜숙, 해연이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너무나 많이 아낌없는 수고와 희생을 감당해준 남편 백수씨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끝까지 엄마의 필요를 참아준 사랑하는 딸 윤미와 아들 용민이에게도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제가 있을 수 있도록 쉬지않고 기도 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훌륭하신 지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부족한 점이 많아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기대에 보답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6월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3절 연구의 제한점	5
제2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부부갈등의 개념	6
제2절 부부갈등의 유발원인	11
제3절 갈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21
제4절 부부갈등관리의 접근방법	24
제3장 연구조사 및 방법	38
제1절 연구의 문제의 설정	38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8
제4장 분석 및 결과	43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43
제2절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부부의 갈등정도분석	45
제3절 부부간의 갈등관리 형태분석	55
제4절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갈등관리분석	61
제5장 요약 및 결론	87

참 고 문 헌	90
설 문 지	96
ABSTRACT	103

표 목 차

<표 2-1> 이혼사유별 이혼	12
<표 2-2> 이혼건수	12
<표 3-1> 신뢰도 분석	41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43
<표 4-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44
<표 4-3> 연령에 따른 부부갈등정도 차이분석(ANOVA)	46
<표 4-4> 교육수준에 따른 부부갈등정도 차이분석(ANOVA)	48
<표 4-5> 직업에 따른 부부갈등정도 차이분석(ANOVA)	50
<표 4-6>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갈등정도 차이분석(ANOVA)	51
<표 4-7> 결혼형식에 따른 갈등정도 차이분석(T-TEST)	52
<표 4-8> 종교에 따른 부부갈등정도 차이분석(ANOVA)	53
<표 4-9> 결혼생활 기간에 따른 부부갈등정도 차이분석(ANOVA)	54
<표 4-10> 동거 형태에 따른 부부갈등정도 차이분석(ANOVA)	55
<표 4-11> 친 인척 요인에 따른 부부갈등 관리방법	56
<표 4-12> 의사소통 요인에 의한 갈등관리방법	57
<표 4-13> 경제적 요인에 의한 부부갈등관리방법	58
<표 4-14> 성적 요인에 의한 부부갈등관리방법	59
<표 4-15> 성격적 요인에 의한 부부갈등관리방법	60
<표 4-16> 성역할 요인에 의한 부부갈등관리방법	61
<표 4-17> 경제적 문제에 따른 소득수준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62
<표 4-18> 경제적 문제에 따른 결혼기간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63
<표 4-19> 경제적 문제에 따른 동거 형태 부부갈등 관리방법	64
<표 4-20> 경제적 문제에 따른 결혼형식 부부갈등 관리방법	65

<표 4-21> 친 인척 문제에 따른 소득수준 부부갈등 관리방법	66
<표 4-22> 친 인척 문제에 따른 결혼기간 부부갈등 관리 방법	67
<표 4-23> 친 인척 문제에 따른 동거형태 부부갈등 관리방법	68
<표 4-24> 친 인척 문제에 따른 결혼 형식 부부갈등 관리방법	69
<표 4-25>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소득수준 부부갈등 관리방법	70
<표 4-26>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결혼기간 부부갈등 관리 방법	71
<표 4-27>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동거형태 부부갈등 관리 방법	72
<표 4-28>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결혼형식 부부갈등 관리 방법	73
<표 4-29> 성 문제에 따른 소득수준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74
<표 4-30> 성 문제에 따른 결혼기간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75
<표 4-31> 성 문제에 따른 동거형태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76
<표 4-32> 성 문제에 따른 결혼형식의 부부 갈등 관리방법	77
<표 4-33> 성 역할 문제에 따른 소득수준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78
<표 4-34> 성 역할 문제에 따른 결혼기간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79
<표 4-35> 성 역할 문제에 따른 동거형태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80
<표 4-36> 성 역할 문제에 따른 결혼형식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81
<표 4-37> 성격적 문제에 따른 소득수준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82
<표 4-38> 성격적 문제에 따른 결혼기간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83
<표 4-39> 성격적 문제에 따른 동거형태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84
<표 4-40> 성격적 문제에 따른 결혼형식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85

그 립 목 차

<그림 1> Thomas의 갈등관리 모델	31
------------------------------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변화를 초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다.

특히 전통적 공동사회가 해체되면서 가족구조도 유교적인 가부장제의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적인 핵가족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가족내의 가치관이나 의식구조도 바뀌어 가고 있다.

더욱이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적 지위가 변함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취업의 기회가 많아지고 가정에서 살림만 하던 전업주부들도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짐으로써 남녀간의 자원 소유의 불평등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여성에게 무조건적인 순종과 인내만을 요구하던 여자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1)

한국여성개발원(2002, 1, 24)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 응답자 7074명 가운데 46.7%가 “이혼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 고 대답했고. 이혼을 생각한 이유로는 성격적인 차이가 40.2%

1) 한국의 가족형태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가부장적인 가족구조는 남성이 여성을 주도하는 체제로서 이러한 가족구조에서는 남녀간의 권력 및 역할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쉽고 이것이 가족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갈등(28.8%), 배우자의 음주(14.1%) 배우자의 부정(5.2%)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다 (3.8%)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안정을 충족시켜 주는 애정에 바탕을 둔 합의, 균형, 조화를 이루는 장(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부부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존속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²⁾

통계청(2002, 3, 21)이 발표한 “2001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 에서 보면 연간 이혼 건수는 135천건(쌍)으로 2000년 120천건에 비하여 15천건 늘어났으며 70년의 12천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으로는 370쌍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의 이혼의 주된 사유로는 부부 불화(가족관 불화)가 70.4%로 가장 많으나 90년의 84.9%에 비해 감소하는 현상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이혼은 11.6%로 전년도 0.9%보다 증가하였으며, 건강 문제로 인한 이혼은 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보아도 부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고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여 심하면 이혼으로 발전하여 부부간은 물론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 문제아나 청소년 범죄의 증가, 알코올 중독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으므로 부부 관계를 향상시키고 보다 안정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부부간에 내재된 갈등은 가족 결합을 약화시키고 심한 경우 가족 해체 결과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 반면, 갈등을 잘 관리하면 더

2) 변화순(1994), “부부간의 갈등과 해소,”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p. 217.

욱 강한 결속 관계를 이룰 수 있고, 문제 해결 방식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상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부부간의 갈등을 잘못된 것으로만 인식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동안의 연구는 단순히 갈등의 원인만을 다루거나 부부갈등의 관리형태는 학대나 폭력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서 갈등 관리방법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극히 적다.

그 동안의 부부 갈등의 표출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갈등관리방법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거의 대부분 Straus(1979)³⁾의 갈등해소 방안척도 (conflict tactics scale)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거의 획일적으로 사용한 3가지 하위변인에는 각기 포함된 행동특성이 있지만, 모든 연구마다 일률적으로 사용한 이 척도로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가족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기에 너무 표면적이고 부족한 느낌이 든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갈등표출행동에 관한 연구가 거의 단일한 척도를 갖고 이루어 졌다는 것은 물론 연구의 축적이 없기도 하거니와 한국의 부부간의 갈등표출 행동을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⁴⁾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관계를 만족스러운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갈등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고 갈등해결 방법에 대한 유형화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갈등요인을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갈등정도를 파악하고 갈등요인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합리적인 관리 방법을 찾아 행복한 부부관계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부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어떤 원인에 의

3) M. A. Straus,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1, 1979, p. 175.

4) 김양희(1993), "한국가족의 갈등연구," 중앙대학교 출판부, p. 57.

해 생겨나며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하는지, 부부간의 갈등과 갈등관리 방법의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가정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부부의 갈등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부부갈등의 요인(친 인척 요인, 의사소통 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 요인, 성격적 요인, 성 역할 요인) 따라 부부의 갈등관리 방법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셋째, 인구통계학적변수(가정의 소득, 동거형태, 결혼형식, 결혼생활기간)에 따라 부부갈등 요인에서 부부간의 갈등관리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부천 시에 거주하는 한 자녀 이상을 둔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혼한 부부는 설문에서 제외하였다. 한 자녀 이상을 둔 부부로 제한한 것은 설문내용에 자녀와 관련된 의사 결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녀를 두지 않은 부부들의 응답에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고 이혼한 남녀를 설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혼은 갈등이 이미 해소되어진 것(Sprey, 1969)⁵⁾으로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조사를 통해 부부갈등 정도를 파악하기

5) J. Sprey, "The Family as a System in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1969, pp. 669-706.

위해 부부갈등의 원인을 6개영역(친 인척요인, 경제적 요인, 의사소통 요인, 성격적 요인, 성 역할요인, 성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각 요인들의 개념적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총 36개 문항을 무작위로 배열하여 질문하였다. 부부갈등 관리 방법으로는 Sprey의 (합의, 협상, 타협, 권력, 영향력, 공격, 위협, 약속, 회피)와 김양희의 (복종, 회피, 합의, 협박, 폭력, 기타)를 기초로 본 연구는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로 그 유형을 변형하여 각 6개영역(친 인척 요인, 의사소통 요인, 경제적요인, 성적 요인, 성격적 요인, 성 역할 요인)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질문하였다.

제3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졌다.

1)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한 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면 더욱더 관계 적인 측면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각기 다른 남편과 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본 연구는 부부갈등의 문제는 매우 개인적이어서 응답하기를 기피하는 부분이므로 자료수집에 난점이 있었으나, 설문지 응답의 결과만을 연구의 자료로 이용하였다.

3)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부천 시내에 거주하는 평범한 남편과 부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부부갈등의 개념

1. 갈등의 개념

갈등은 개인, 집단, 조직 등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각 분야의 많은 학자들이 갈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 시켰다. 왜냐하면, 사회적 갈등에 대한 연구들이 경험적 연구, 이론적 연구로 다양하게 전개됨에 따라 개념상, 이론상의 혼란이 야기되었고 그 결과 갈등현상이 계급간 비교와 이론적 통합절차를 어렵게 만들었다.⁶⁾

갈등의 개념과 관련하여 March 와 Simon은 의사결정 표준기구의 붕괴(a breakdown in standard mechanisms of decision making)가 생겨 개인이나 집단이 하나의 행동 대안을 찾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것⁷⁾으로 보았다.

Luthans는 상호간의 목표달성을 방해하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감정적으로 적대감을 갖는 가치(values) 또는 목표(goals)사이에 존재하는 목적의 비양립적 조건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Coser는 사회적 갈등이란 대립되는 양편의 가치, 지위, 권력 및 희소 자원에 대한 투쟁이며, 이러한 갈등은 개인과 집단간, 개인과 조직 사이에서 발생 할 수 있다.⁹⁾

6) C. F. Fink, "Some Conceptual Difficulties in the Theory of Soci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7, No. 4, 1968, p. 416

7) J. G. March and H. A. Simon, *Organizations*, New York, John Wiley, 1958, p. 112.

8) F. Luthans, *Organization Behavior*, New York, Mcgrow-Hill, 1985, p. 386.

9) L. A. Coser, *Continuity in the Study of Social Conflict*, New York, Free

또한 Dahrendorf는 갈등은 사회적인 세력간의 명백한 충돌뿐 아니라 경쟁·대결·논쟁·긴장감 등을 나타내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즉 갈등이란 구성원간의 양립할 수 없는 상이한 목표를 가진 조직 단위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개념¹⁰⁾이라 할 수 있다.

갈등과 관련한 개념은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데, Rue와 Byars는 갈등은 개인 또는 집단의 지각된 욕구가 좌절되었거나, 좌절될 것이라고 생각 할 때 초래되는 공공연한 행동이라 하였다.¹¹⁾

Mondy 와 Premeaux는 갈등은 사람들 사이 또는 그들간의 적대감이 나 반대 행동으로서, 갈등은 사람들간의 경쟁 또는 상호의 방해 행동이 있을 때 일어난다¹²⁾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갈등에 관한 여러 정의를 살펴볼 때, 갈등의 개념을 한 가지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각각의 개념에는 특히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집단간 갈등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¹³⁾

- ① 갈등은 둘 이상의 행동주체(당사자)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다.¹⁴⁾
- ② 갈등은 심리적 대립감과 대립적 행동을 내포하는 동태적 과정(dynamic process)이다.
- ③ 갈등의 진행과정에서 표면화되는 대립적 행동에는 싸움이나 파괴와

Press, 1967, Chap, 1.

10) R. Dahrendor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p. 135.

11) L. W. Rue and L. L. Byars, *Management*, 6th ed., Irwin, 1992, p. 402.

12) R. W. Mondy and S. R. Premeaux, *Management*, 6th ed., Allyn & Bacon, 1993, p. 405.

13) 유종해(1995), 「현대조직관리」, 박영사, pp. 306-307.

14) K. E. Boulding, "A Pure Theory of Conflict Applied to Organizations," in R. L. Kahan and K. E. Boulding, eds, *Power and Conflict in Organizations*, Basic Books, 1964, p. 138.

같은 폭력적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다.

④ 갈등은 표면화되는 대립적 행동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단 지각하지 못한 갈등상황의 존재는 갈등이라 할 수 없다.

⑤ 갈등은 조직을 위해 유익한 것 일 수도 있고 해로운 것 일 수도 있다.¹⁵⁾

2. 갈등이론의 가족학에의 적용

짐멜, 코저 등이 발전시킨 구조 기능적인 갈등이론을 토대로 가족을 연구하여 갈등주의적 가족이론을 체계화하려고 시도한 학자로는 스프레이, 콜린스 등을 들 수 있다. 스프레이는 그의 일련의 논문에서 갈등이론적 가족이론을 정교화시키고 있다. 스프레이는 결혼과 가족내의 갈등을 배우자나 다른 가족성원들의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라고 보았을 때, 일정한 경쟁이 지속되는 동안에 서로를 의식하는 정도나 특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콜린스는 성과 연령에 따른 층화로 인한 불평등에 입각하여 가족을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가족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라는 차이는 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평등을 초래하여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1) 스프레이-그는 「결혼과 가족에 있어서의 갈등이론 및 그 연구」에서 결혼과 가족의 연구에 갈등이론이 접목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갈등이론은 역동적이고 과정 지향적이기 때문에 갈등이론으로 접근하면, 결혼과 가족 내의 표출적 충돌이나 교섭행위, 권력남용과 같

15) 이현주(1998), “갈등원천 및 갈등관리 유형에 따른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집단간 갈등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5.

은 현상을 설명하거나 혹은 그것 이상의 것도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결혼과 가족분야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안정, 불안정이 유발되는지, 또한 어떤 조건하에서 개인간의 유대가 균형이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갈등이론은 사회화 과정에 대한 명제에 있어서 반드시 마르크스주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결혼생활이 필연적으로 어느 한 계급(남성)이 다른 계급(여성)을 지배하는 계급사회의 축소판은 아니며, 따라서 결혼과 가족생활의 충돌은 보다 일반적이고 복합적인 경쟁구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가족 내부에 구성원들간의 대립과 이익의 상충이 발생되며 가족은 끊임없이 평화를 위해 타협한다. 그러나 항상 일치와 조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는 갈등은 가족생활에서 영원히 종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갈등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잠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것은 기존의 갈등이나 경쟁구조가 재편성 혹은 재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건전한 가정 혹은 화목한 가정이란 가족성원들간의 갈등을 서로 잘 관리하는 가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콜린스 -(1) 성적충화에 의한 갈등: 콜린스의 갈등이론의 기원은 프로이트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갈등은 가족생활의 주요한 두 가지 차원, 즉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 사이의 성적 투쟁과 권력투쟁에 있다고 보았다. 콜린스는 우선 성적 충화로 인한 갈등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프로이트가 말한 성과 공격적 충동과 이것의 억압 사이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 그는 성적 동기와 공격적 동기가 일상생활에서 성인남녀 사이의 행위를 결정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졌다.

그의 성적 충화의 이론은 3가지 기본적 가정을 전제로 한다.

첫째, 모든 인간은 성적 만족을 위한 강한 충동이 있다.

둘째, 모든 인간은 강요된 것에 대응하여 공격적으로 각성하는 능력이

있다.

셋째, 보통 남성은 여성보다 크고 힘이 세다. 또한 여성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취약점이 있다. 이는 사회지배를 위한 자원이 양성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것이다.

콜린스의 갈등주의적인 관점이 성 역할사회와 분석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성 역할 계층화를 말하면서, 남성은 전통적으로 여성을 지배하여 왔는데 이는 남성은 신체적으로 강한 힘을 갖고 있고 여성들은 자녀 생산과 양육의 책임때문에 그러한 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2) 연령적 층화에 의한 갈등

콜린스는 자원과 관계된 성적 층화뿐만 아니라 자원에 따른 연령적 층화도 파악하고 있다. 자원은 서로 다른 연령집단으로 하여금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하고 그들의 권력을 결정 지우므로, 자원의 이동으로 인해 연령의 층화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각 개인은 그의 주위에서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첫째, 시간에서 얻는 이익이다. 이는 기성세대는 이미 축적된 자원으로 얻는 이익에 있는 반면,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것이다. 권력은 이러한 상황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둘째, 신체의 크기와 힘이다. 이것은 인간들 사이에 잠재적 자원이 되는데, 어른이 갖는 신체적 크기와 힘으로 인한 자원은 어른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해 준다.

셋째, 신체적 매력이다. 어른과 아이들이 갖는 신체적인 매력은 서로 다르다. 아이들은 성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육체적 기쁨을 얻고 반대로 어른은 아이의 응석과 같은 것에서 기쁨을 얻는다.¹⁶⁾

제2절 부부갈등의 유발원인

우리 나라 부부의 절반은 이혼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개발원(2002, 1, 24)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1만 400 가구 1만 400명을 대상으로 가족생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 응답자 7074명 가운데 46.7%가 “이혼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혼을 생각해 본 정도(4점 만점)는 여성(2.61점)이 남성(2.41점)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2.66점)의 이혼 위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을 생각한 이유로는 성격차이가 (40.2%)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갈등(28.8%), 배우자의 음주(14.1%), 배우자의 부정(5.2%),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다(3.8%)등의 순이었다.

통계청(2002. 3. 21)이 발표한 ‘2001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에 따르면 인구1000명당 이혼건수는 70년 0.4건에서 지난해엔 2.8건으로 늘어 하루 평균 370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주된 이혼 사유는 부부불화(가족관 불화 포함)가 74.0%로 가장 많으나 꾸준히 감소세로 유지하고 있고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은 11.6%로 전년보다 0.9% 증가하였으며, 건강문제로 인한 이혼은 0.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이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지향등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2001년 연간 이혼 건수는 135천건(쌍)으로 2000년 120천건에 비하여 15천건 늘어났으며 70년의 12천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 김양희(1993), 전계서, p. 45.

통계청의 이혼사유별 이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표 2-1>과 <표 2-2> 와 같다.

<표 2-1> 이혼사유별 이혼

(단위 : 천건, %)

	1990	1995	1998	1999	2000	
계	45.7	68.3	116.7	118.0	120.0	
부부불화	38.8	56.7	94.2	94.6	89.4	
경제문제	0.9	2.0	7.7	8.3	12.8	
건강문제	0.7	0.7	1.1	1.0	1.1	
기 타	5.3	8.9	13.7	14.1	16.7	
구 성 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부불화	84.9	83.0	80.7	80.2	74.5	
경제문제	2.0	2.9	6.6	7.0	10.7	
건강문제	1.5	1.0	0.9	0.9	0.9	
기 타	11.6	13.1	11.8	11.9	13.9	

*부부불화 : 가족간 불화 포함

자료 : 통계청

*기타 : 미상포함

<표 2-2> 이혼건수

(단위 : 인구천명당 건)

	1970	1980	1990	1995	1998	1999	2000	
이혼건수(천건)	11.6	23.7	45.7	68.3	116.7	118.0	120.0	
조이혼율	0.4	0.6	1.1	1.5	2.5	2.5	2.5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한남제는 남편과 부인의 경우로 나누어서 불만이 높은 순서대로 제시하였는데, 남편은 부인의 건강이 나쁜것, 경제적 곤란, 별거 중인 형제, 부모 때문에 괴로운 점, 부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점, 부부간에 성격이 맞지 않는 점, 자녀가 없는

점, 부인이 성적으로 만족시켜주지 않는 점, 부인이 살림살이를 등한시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부인은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점, 부부간에 성격이 맞지 않는 점, 남편의 가족, 친족 때문에 괴로운 점, 남편의 협력심이 부족한 점,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점, 남편의 건강이 나쁜 점,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는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¹⁷⁾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를 토대로 갈등의 원인을 사회 심리적 변수인 ① 친 인척 요인, ② 의사소통 요인, ③ 경제적 요인 ④ 성적 요인, ⑤ 성격적 요인, ⑥ 성 역할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친 인척 요인

전통적 한국가족은 가부장제 가족으로 부계, 부권의 특성을 가졌다. 따라서 가족구조의 중심 핵은 아버지-아들로 이어지는 선이며 이 선을 향해 권력이 집중되었다. 또한 인간관계도 수직적인 지향을 하게 되며 내면적으로 지나친 모자관계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고부관계는 허약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갖는다.

고부관계를 갈등의 측면에서 보는 대부분의 연구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족구조가 가부장적 부계 가족이면서 직계가족 특성을 갖기 때문에 수직적 인간관계 지향과 밀착된 특수한 모자관계, 열등한 여성의 지위 등을 낳았으며, 그 결과 고부간에 가장 허약하면서도 원천적으로 부정적인 정서 관계를 교환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나타나는 고부간의 갈등원인으로는 권력 구조적 원인, 역할기대의 원인, 역할 수행적 원인을 들 수 있는데 역할기대면에서 시모의 지나친 기대에 대한 불만과 애정구조면에서 자부 개인에 대한 시모의 무관심과 소홀에

17) 변화순(1994), 전계서, p. 226.

대한 시모의 꾸중 등을 들 수 있겠다. 남정현은 임상치료의 대상인 고부를 관찰한 결과 며느리는 주부 역할상의 문제점, 시댁 일에대한 참여문제, 시모와 남편과의 관계가 대부분으로 이 갈등은 혼합되어 나타난다¹⁸⁾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전통적인 부계 제에서 선택적 양계제로의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¹⁹⁾ 따라서 부부관계에 대한 침입으로 간주하게 되는 경우 장모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아직은 자녀세대의 실리추구와 부모세대의 전통적인 사위에 대한 거리감이 맞물려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갈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마태복음, 19: 5) 이러한 성서적 측면에서 볼 때, 부부가 각자의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친 인척간의 갈등을 줄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 되리라 생각된다.

2. 의사소통 요인

결혼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의사소통 과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특히 결혼 생활에서 크나 결혼생활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강도 높은 정서가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의사 소통의 어려움도 동시에 커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가족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장소이므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낮아진다. 이런 이유로 부부는 감정이 고조되고 흥분된 상태에서 이성을 잃게 되고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메시지를 서로 보내거나 부부 사이에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갈등상황에 빠지

18) 남정현(1984), “고부간의 갈등,” 『한국 가족관계에서의 갈등』, 한국심리학회, pp. 95-109.

19) 옥선화 외(2000), 『결혼과 가족』, 도서출판(하우), p. 194.

게 되는 것을 흔히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만한 의사소통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담사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부부들이 결혼에 대한 의무감은 높았으나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이 부족한 경향이 지적되고, 갈등 상황에서 사용하는 갈등해결 전략에 따라 부부간의 정서적 감정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건설적인 갈등해결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부부들은 대체로 성격차이,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가장 많이 느끼며 그밖에 경제 문제, 성 생활, 친가 및 인척관계, 자녀지도, 배우자의 나쁜 습관, 가사 분담등에 있어서 배우자와 갈등을 느낀다고 한다.²⁰⁾

의사소통은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리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가정경영의 필수적인 관리적 도구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가정생활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역동적인 것으로 작용한다. 특히 가정생활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부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그러한 가정관리의 방식이 요구되어 현대 가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²¹⁾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부부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함께 의논하여 가정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공평한 부부관계를 유지시켜주고 가정생활에 만족 도도 높게 나타났다.²²⁾ 반면, 부부간의 의사소통

20) 유영주 외(2000), 「현대 결혼과 가족」, 신광출판사, p. 236, 재인용.

21) 박혜경(1992), “부부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0-17.

22) 김경숙(1998),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남편의 인지가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36(1), pp. 100-106.

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가정생활의 행복을 위협하며, 가족 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처럼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3. 경제적 요인

산업 사회의 가족의 기능은 기능적인 소비단위로써 소비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가족이 생산 경제적 기능을 하는 경우보다 소비기능을 주로 하는 현대 가족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의 기능 및 가족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 여유는 결혼 생활의 행, 불행을 좌우하는 또 한가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부부간의 불화가 잦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처자의 의식주 생활을 위한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열등감과 심리적 불안을 얻게 되며 가장으로서의 위신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 가정생활에 어느 정도 경제생활 안정이 이루어져야만 결혼생활의 행복을 느끼며,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²³⁾ IMF이후 가정에서의 경제적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경제적 역할은 부부간의 조화로운 통합의 요소가 되기도 하거니와 부부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돈은 부부갈등의 주요 근원일 뿐만 아니라 빚 또한 결혼에서 가장 큰 위기임을 알 수 있으며, 돈이 부부갈등의 주요 근원이 되는 이유는 기본적인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자신의 안정, 자존감, 타인의 인정과도 관계되어 수단적 역할을 담당하는 남성에게 매우 스트레스를 주기

23) 박해경(1998), “도시주부의 가정내 갈등과 우울감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2.

때문이다.

월 평균 가계 소득에 따른 부부간 의사소통도도 대부분 월 평균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가계소득은 가정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변인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²⁴⁾

이처럼 경제적 역할은 가정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잠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부부간의 갈등에 있어서 월평균 소득이 간접적으로 가정생활에 만족도를 주기도 하지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입의 절대 액수라기보다 돈을 사용하는 방법, 즉 돈을 누가 소비하는지, 돈을 누가 버는지, 돈 관리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서로 상반하는 데서 복합적으로 갈등으로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변화순의 연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은, 남편은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부인은 살림을 잘해야 한다' 는 고정된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역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이 '돈을 잘 벌지 못하면' 부인은 갈등을 느끼고, 부인이 '살림을 잘 못하면' 이에 대해 남편은 불만을 느끼게 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남편은 부인의 외출을 싫어해서 부인의 외출에 대해 제재를 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2002. 2. 14)²⁵⁾의 조사에서도 이혼을 생각한 이유로 경제적 갈등이 28.8%로 나타났고, 2001년 통계청의 이혼의 주된 사유로 경

24) 이정우(1998), "한국 도시인의 가치 지향성 및 생활관리전략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1), pp. 15-31.

25) 동아일보(2002. 1. 24), "이혼 생각해봤다," 29면.

제문제로 인한 이혼이 1990년 0.9%에서 2001년 15.6%로 증가한 것을 보아도 경제적 요인이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성적 요인

결혼생활의 성이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은 결혼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성은 사랑이라는 관념과 결합되어 인간심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정서적으로나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간의 신체적 결합을 이루게 하는 성이 결혼 관계에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Kitson & Sussman (1982)²⁶⁾은 결혼년수가 짧을수록, 성적인 부조화에 갈등을 느꼈으며, 부부생활의 성생활 부조화, 배우자의 외도는 초기단계에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Hite(1981)는 남자들은 여성의 성흥미 부족, 최초의 성교제시 실패에 대하여, 여성은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위한 성교동안의 성적 자극의 필요성 인식부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Mcmillan(1969)의 보고서에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성적인 부조화를 호소한 반면, Snyder (1979), Rhyne (1981)의 연구결과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성적인 부조화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는 부인과 남편의 성적인 만족 측정에 다른 표준을 사용하거나, 어느 한쪽이 성적인 면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는 등 기대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²⁷⁾

26) G. C. Kitson & M. B. Sussman, "Marital Complai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ymptoms of Mental Distress in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4, 1982, pp. 87-101.

27) 김혜경(1986), "결혼초기 부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7. 재인용.

위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부간의 성적 기대 및 수행의 불일치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5. 성격적 요인

부부갈등의 주된 요인으로서 성격적인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부의 인격적 적응은 외부에 나타나거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으로 자신들만이 갖는 분위기에 대한 적응을 의미한다. 부부간에 인격적 적응이 잘 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른 한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기초가 되며, 또한 원만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²⁸⁾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성격적인 요인에 대한 부부간의 연구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그다지 성격적인 이유로 인한 갈등 표출이 심각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인 지위변화로 이제는 부부간의 성격적 요인은 부부갈등의 요인으로 크게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에 초기에는 '배우자의 부정' 이 부부 갈등의 심각한 원인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부부간의 성격차' 가 점점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 여성개발원의 조사(2002. 1. 24)²⁹⁾에서도 이혼을 생각한 이유로 성격적인 차이가 4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부간의 갈등이 성격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이 큼을 알 수 있다.

6. 성 역할 요인

결혼생활에서 역할의 갈등은 자신의 흥미나 관심과 기대역할과 차이가 있을 때, 상대가 기대하는 역할과 자신이 요구하는 역할이 차이가 있을

28) 이정우 외(1992), 『결혼과 가족관계』,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p. 289.

29) 동아일보(2002. 1. 24), “이혼 생각해봤다,” 29면.

때,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요구받을 때 주어진 역할의 한계가 불분명할 때 일어난다.

성 역할 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성 역할 태도는 부부간의 역할을 성에 의해 구분하는 전통적 태도와 성의 분화를 최소화시켜 역할의 융통성을 선호하는 근대적 태도로 분류되어 분석되었는데,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간의 결혼 만족도와의 관계는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 남편이 근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전통적인 경우보다 부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역할 태도에 따른 가정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표준에 대한 조정과 상황에 따른 유연한 조정을 하기가 어려워 시간 관리전략의 사용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가계전략의 경우에 의하면 전업주부의 가치 지향성이 성평등 지향적일수록 가계 관리전략의 사용 수준이 높았다.³⁰⁾

정해은, 서병숙(1983)의 연구 결과를 보면 여자대학 교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어려움은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의 부족으로 가족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아내의 역할 수행에 대한 남편의 평가와 기대간에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여성의 지위향상이 반드시 남성의 지위하락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은 여성이 남성의 기를 죽이고, 남성의 일자리를 차지하면, 남성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가정에서 만이라도 남성에게 양보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모두 상대

30) 심혜선(2001), “도시주부의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 가정관리전략 및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19권 5호 p. 134.

31) 정해은, 서병숙(1983), “여성전문직 종사자의 가족내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 창간호, pp. 27-41.

방을 비하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거나 상대방을 고립시킴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대립적 입장을 지양해야 한다. 남녀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뗄 수 없는 유기적 연대를 재확인하고 보다 생산적인 협동을 꾀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³²⁾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볼 때 성 역할의 수행 및 기대의 불일치는 부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갈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Coser(1967)³³⁾는 갈등은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조직의 제도화된 유형들의 생동성과 융통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사회체계의 계속적인 적응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했고, 갈등은 혁신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압력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사회체계의 경직화를 방지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즉 갈등은 기존 질서가 엄격할 정도로 정형화되는 것을 방지해 주며 창의적이면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만큼 높여주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기존의 이익과 새로운 가치와의 갈등 현실과 당위적 가치 사이의 긴장 또는 기득권을 소유한 계층과 새로이 기득권을 요구하는 계층사이의 갈등 따위가 사회적인 활력을 충전시켜주기도 한다.

이처럼 갈등을 필요현상으로 이해할 때, 갈등은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노출시켜주는 계기가 된다.³⁴⁾ Sprey는 건전한 가정 혹은 화목한

32) 유영주(1997), 『현대 결혼과 가족』, 경희대 출판부, p. 108.

33) L. A. Coser, "Conflict : Social Aspect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3 , New York : The Macmillan co. & The Free Press, 1967, p. 235.

34) 장우근(1994), "갈등의 이론적 접근방법과 갈등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중

가정이란 가족성원들간의 갈등을 서로 잘 관리하는 가정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렇듯 갈등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갈등이 결혼생활에 행복을 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갈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긍정적 영향

첫째, 긴장의 제거(Relief of tension) ; 즉 갈등의 표출은 마음속에 두었던 긴장과 적의 등을 해소함으로써 건강과 치료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마음속의 긴장과 부정적 감정의 유지는 고혈압과 궤양과 극적인 신경증을 유발하게 된다.

둘째, 분노의 감소(Reducing Resentment); 분노는 결코 표현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화가 끓아진 것으로 갈등을 노출시키면 이런 감정들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

셋째, 문제의 인정(Identification of Problem) ; 갈등은 종종 부부관계에 있어 아주 작고, 정확하고, 유용한 목적을 제공해 준다. 또한 갈등을 노출시킴으로 해서 실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문제중에서 관계가 없는 문제는 버리게 될 수도 있고, 실제 문제에 대해 오해한 것을 인정할 수도 있다.

넷째, 상호이해의 증가(Increasing Mutual Understanding) ; 갈등은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함으로써 해서 매우 긍정적인 이익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과거의 경험과 가치에 대한 더 큰 평가는 갈등의 상황으로부터 오게된다.

다섯째, 관계의 새로운 평가(Renewing Appreciation of the

Relationship) ; 부부가 서로 결혼관계에 대해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면, 갈등은 유익한 관계를 제공하게 되고, 유익하지 않은 관계라면 부부가 서로 소원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부정적 단계를 통해서 상호 긍정적인 감정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2. 부정적인 영향

물론 갈등은 관계에 있어 종종 부정적으로도 작용한다. 격렬하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긴장을 유발하여 신체적 부적응의 원인이 되며, 상대방에 대해 지속적인 공격을 가해 부정적 자아관과 두 사람 사이를 소원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부부사이의 신뢰가 감소될 때 갈등은 관계에 있어 역기능적인 작용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설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실패하게 만든다.³⁶⁾

부부간의 갈등은 상호 상대방의 자아를 새로 발견하거나 유지하는 수단이며 타인과 비교하여 상대방의 가치, 욕구, 목표를 깨닫게 되며³⁷⁾ 자신과 배우자간의 상호작용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 그릇된 정보에 대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도 한다.

‘비운 뒤 땅이 더 굳어진다’ 는 우리의 속담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 질때, 갈등은 상대방에 대하여 미처 깨닫지 못한 면을 인식시켜 주며, 또한 부부의 관계를 더욱 결속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갈등이 부부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 부부관계는 소원해지며, 결국은 상대방에 대해 체념을 하게 되거나

35) N. Stingiest, J. Walters and E. Kaye, *Relationships in Marriage and the Family*, Macmillan Pub., 1984, pp. 187-190.

36) 송영자(1986), “부부간의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4.

37) B. Strong, C. Devault, M. Suid and R. Reynolds, *The Marriage and Family Experience*, West Pub., 1983, pp. 293-294.

극단적인 단계에 가서는 헤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부부사이가 좋아질 수 있으며, 반대로 한 집안에서 남남처럼 살거나 갈등에 길들여져 살수도 있는 것이다.³⁸⁾

제4절 부부갈등관리의 접근방법

1. 갈등관리의 접근

가족 구성원의 욕망 충족과 행복은 주어진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하는 관리활동에 있듯이³⁹⁾ 가정 생활에 대한 의사 결정시 나타나는 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가정의 안정과 결속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Sprey(1974, 1981)⁴⁰⁾는 갈등론적 가족 이론을 주제로한 일련의 연구에서 가족 성원들간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갈등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면 창조성을 발휘하는 필수적 전제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Deustch(1971)와 Kan-Boulding(1964)은 갈등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을 통해 갈등을 생산적, 창조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갈등관리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Paolucci, Hall과 Axinn(1977: 157-158)

38) 변화순(1994), 전게서, p. 223.

39) 이정우(1998), “한국 도시인의 가치 지향성 및 생활관리전략에 따른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 가족자원 경영학회지』, 한국 가족자원경영학회, 2(1), pp. 15-31.

40) J. Sprey, “Family Power and Process : Toward a Conceptual Integration,” in Cromwell. R. H. and Olson. D. H., eds, *Power in Families*, New York ; Halsted Press, 1974. pp. 61-79.

----- “Conflict Theory and Study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 Free Press, 1981, in Burr W. R. & Hill ,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 2, p. 134

은 갈등을 창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적대감보다는 융통성이나 관리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⁴¹⁾

이와 같이 갈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경우 갈등해소를 도울 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갈등을 개인성향의 불일치, 또는 이해의 불일치로 인해 야기되는 것으로 본다면, 부부의 공동생활은 끊임없는 관심 및 의견에 있어서 차이를 내포하게 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권력(power)의 관계를 개입시킬 수 있다.

다렌도르프⁴²⁾는 권력은 갈등상태에 있는 집단에서 갈등을 심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갈등이 바람직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권력은 한 행위의 방향이나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잠재력으로 표현될 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태도는 갈등해소에 매우 중요하다.

French 와 Raven(1959)⁴³⁾ 가족 내 권력 원천을 5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보상적 권력(reward power)은 자신이 희망하는 행동변화에 대해 상대방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고, 강압적 권력(coercive power)은 소망하는 행동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대방이 처벌을 가해올 것이라는 사실을 행위자가 인지하고 있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합법적 권력(legitimate power)은 권위라고도 불리는데 규범적으로 정해진 합법적인 권리에 바탕을 두며, 준거적 권력(referent

41) 변화순(1994), 전계서, p. 268. 재인용.

42) 랄프 다렌도르프(1980), "사회 갈등이론의 모색," 박영신 편저, 『갈등의 사회학』, (서울: 도서출판 까치), pp. 84-85.

43) French & Raven, "The Bases of Social Power", D. Cartwright, *Studies in Social Power*, a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9, pp. 118-149.

power)은 타인에 대한 매력이나 동일시에 바탕을 두고 있고, 전문가적 권력(expert power)은 어떤 특정분야에서 상대방이 우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행위자의 지각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 권력의 원천은 어떤 가족원이 특정상황에서 통제를 행사할 기회를 증가 시켜 주는 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Kipnis 와 Schmidt(1982)⁴⁴⁾는 가정에서 권력보유자가 행사하는 영향력을 갈등을 관리하는데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보았으며 이에 가정내 영향력 행사 전략을 다음의 7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 합리적 전략(reason strategy): 사실적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다.

(2) 통합적 전략(coalition strategy): 가정내 다른 구성원을 동조자로 동원 시킨다.

(3) 환심적 전략(ingratiation strategy): 아침, 공언, 그리고 좋은 인상을 준다.

(4) 협상적 전략(bargaining strategy): 효용, 이익, 그리고 이해관계의 교환을 통해 타협한다.

(5) 독단적 전략(assertiveness strategy): 직접적인 강요나 명령을 이용한다.

(6) 권위적 전략(high authority strategy): 가정 내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지지를 획득하여 이용한다.

(7) 보상적 전략(sanction strategy): 보상이나 처벌을 이용한다.

이상의 영향력 전략을 부부가 서로 인지함으로써 갈등 해결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44) O. Kipnis and S. M. Schmidt, "An Influence Perspective on Bargaining within Organiz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Bargaining within Organizations Conference, Boston October , 1982, pp. 15-17.*

2. 갈등관리 형태

Galvin Brommel(1982)⁴⁵⁾은 성공적인 갈등관리의 태도와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원간의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갈등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모든 가족원은 각기 자기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시간을 동등하게 가지며 연속적으로 의사소통을 교환한다.

둘째, 감정은 표현되어지며 억압되지 않게 한다.

셋째, 상대방과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고 감정 이입을 통해 경청한다.

넷째, 갈등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문제들도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

다섯째, 가족원들은 서로의 의견, 가치, 바람의 차이를 존중한다.

여섯째, 가족원들은 갈등 해결은 가능한 것이며, 성장과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일곱째, 경험한 갈등에서 어떤 규칙의 윤곽이 있음을 전개시킨다.

여덟째, 가족원들은 차이점을 수습하기 위한 과정으로 문제해결을 경험한다.

아홉째,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권력이나 통제를 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호 배려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들은 갈등을 긍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Straus(1979)⁴⁶⁾는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45) 김미령(1993), “부부의 공동의사 결정시 내재된 갈등과 갈등관리 형태에 관한 연구,” p. 10, 재인용.

46) M. A. Straus, “Measuring Intra 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ruary, pp. 75-95.

연구를 언어적 관리와 비언어적 관리 그리고 양자를 동시에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즉 합리적 논쟁의 범주(reasoning) -논쟁이 생겼을 때 토론이나 이성적인 판단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조용히 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해결할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중재자를 통하는 것-, 폭력(violence) -갈등을 해결하는데 육체적인 힘이나 완력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언어 또는 비언어적 사용범주(verbal aggression)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상징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 협박하는 것- 로 구분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Sprey(1971)⁴⁷⁾는 부부 또는 가족성원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실제적인 갈등관리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협상에 있어서 그 과정의 특성에 따른 갈등관리 형태들을 제시하였다. 즉 가족간의 애정과 사랑을 통하여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결속(bonding), 파괴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공격(aggression), 개인 상호간의 조화와 균형을 교환하여 가족의 안정을 유지하는 양보(appeasement) 그리고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협(threat) 등이다. 그리고 그 후속 연구에서 (Sprey, 1981:139-141), 합의(consensus), 협상과 타협(negotiation and bargain), 권한과 영향력(power and influence), 공격(aggression) 그리고 위협과 약속(threats and promise) 등의 개념으로 더욱 세분화된 갈등관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Sprey가 사용한 개념을 적용하여 가족체계 내에서의 갈등에 대한 갈등관리 방법을 복종, 회피, 합의, 위협, 폭력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⁴⁸⁾

47) J. Sprey, "On the Management of Conflict i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ember, 1971. pp. 722-731.

48) 김양희(1986), "한국 도시인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서울시 거주 부인의 표본조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54.

이와 같이 갈등관리 방법은 언어적 갈등관리 방법과 비언어적 갈등관리 방법이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또한 유사한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언어적 갈등관리에 대한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고 있어,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의 긍정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갈등관리, 갈등해결을 주제로한 연구에서 신체적, 물리적 힘의 사용을 포함하는 폭력적인 갈등관리 방법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관리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갈등을 관리하는데 있어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 가정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갈등을 관리하는데,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갈등은 관리되어야 한다.

Simon(1958)⁴⁹⁾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problem solving), 설득(persuasion), 협상(bargain), 정략(politics)의 4가지 갈등관리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문제해결은 갈등의 당사자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갈등 당사자간에 기본적인 목표와 합의 내지는 공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합의되고 공유된 기준을 만족시키는 점에서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정보수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탐색 활동이 증가하며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49) H. A. Simon, *Administrative Behavior : A Study of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2nd, ed, New York : Macmillan, 1957, pp. 129-130.

설득은 가족내의 개개 하위목표(subgoal)를 둘러싼 의견의 불일치는 전체의 공동목표에 입각하여 조정될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해결방법으로, 이 경우는 하위목표가 전체목표화의 모순을 제거하고 일치성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상은 갈등 당사자간의 목표차이 또는 목표를 둘러싼 의견 불일치를 고정부련의 것으로 간주하고 설득이 아닌 타협이나 상호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는 고집이나 힘 등에 의한 투쟁이기보다는 공정성(fairness)이나 명료성(obviousness)이라는 공유된 가치에 호소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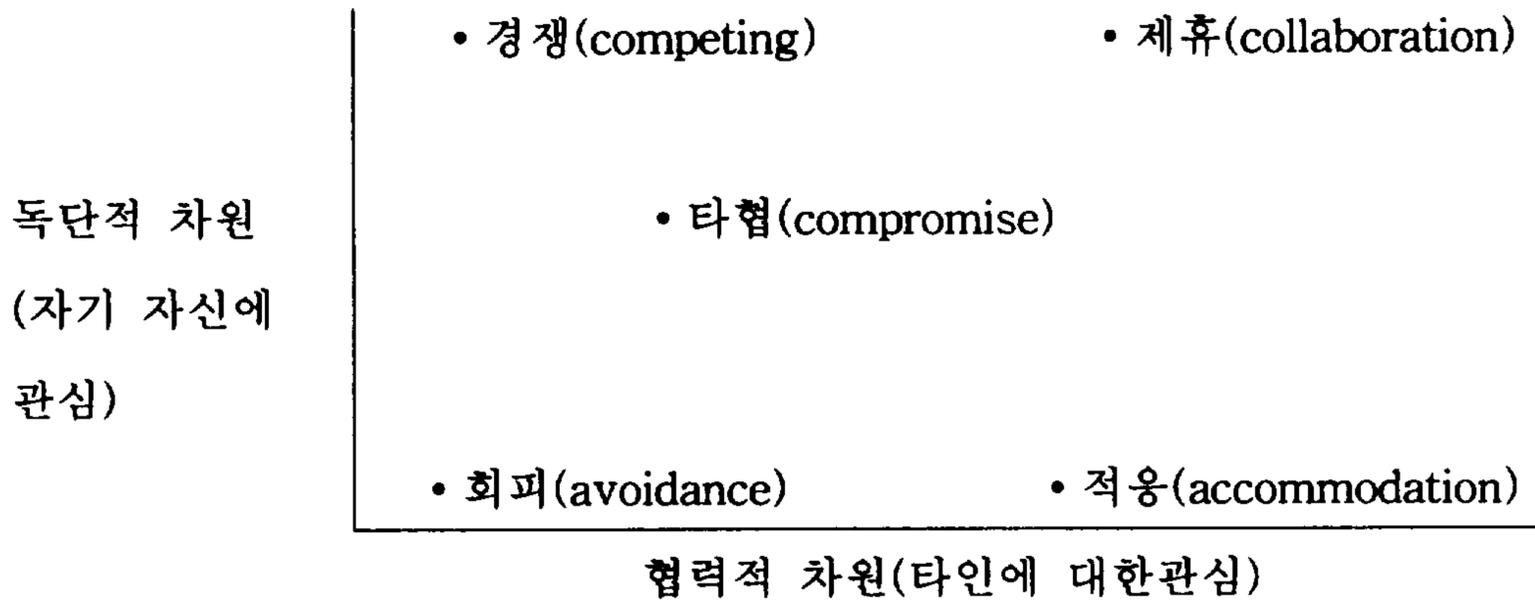
정략은 기본적 상황이 협상과 유사한 과정 혹은 성격을 띠고 있으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을 협상과정에 참여시켜 해결하는 방법이다.

Thomas(1976)⁵⁰⁾는 집단중심의 갈등관리방식에 선행되는 대인간의 갈등관리형태를 제시하였는데, 갈등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갈등관리 방식으로 개인의 갈등관리 형태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Thomas(1976)는 갈등관리의 차원을 자기 자신의 요구만을 만족시키려는 행위인 독단적(assertive) 차원과 다른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행위인 협력적(cooperative)차원이라는 2개 차원의 조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시하였다.

50) K. W. Thomas, "Conflict and Management,"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 Rand McNally, 1976, pp. 889-935.

<그림 1> Thomas의 갈등관리 모델



자료 : K. W. Thomas, op, cit, p. 900.

경쟁(competing)은 독단 성이 높고 협력 성이 낮은 것으로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매우 이기적인 갈등관리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제휴(collaboration)는 독단성과 협력 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다른 가족원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일어나며 이는 가족원들이 자기 욕구의 포기라는 느낌이 없이 모두가 자기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갈등관리 형태이다.

타협(compromise)은 독단성과 협력성이 모두 중간정도의 수준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부분적으로만 충족시키는 갈등관리 형태이다.

회피(avoidance)는 독단성과 협력 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갈등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하거나 갈등 상대와의 접촉을 피하는 방법이다.

적응(accommodation)은 독단 성이 낮고 협력 성이 높은 것으로, 상대방의 욕구는 충족시키고 자신의 욕구는 억제하는 갈등관리 형태이다.

이러한 갈등관리형태는 가족성원들간의 피드백(feedback)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향관계를 깨닫게 해주며, 나아가 긍정적인 갈등관리형태를 취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3. 부부간의 갈등관리방법

부부간의 갈등관리방법을 다룬 연구들의 경향과 내용을 보면 최근에서야 갈등관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을 뿐 대부분 갈등표출방법, 갈등해결방법, 갈등해소방법, 갈등조정방안이라는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부부갈등이나 그에 대한 갈등관리형태는 학대 및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의 일반적인 생활에 대해 갈등이나 갈등관리방법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극히 적다.

송영자⁵¹⁾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갈등원인, 표출방법, 표출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 중 갈등표출방법으로 Murry A Straus(1979)⁵²⁾의 갈등해소방안 3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그 척도중 15개 문항을 사용하여 이성적인 방법, 말다툼, 폭력으로 갈등표출 방법을 범주화하여 살펴보고 있다.

김정옥⁵³⁾의 연구는 도시부부의 갈등 해결 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로서 Straus 의 갈등표출방법 하위변인중 폭력에 주로 중점을 두어 갈등해결 표출방법으로서 부부간의 폭력행동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갈등 해결 방법중 폭력행동에 중점을 두어 살핀 연구는 양은희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연구에서는 Straus의 갈등표출방법중 이

51) 송영자(1986), 전게서, p. 15.

52) M. A. Straus, Ibid., pp.75-95.

53) 김정옥(1985), “도시 부부의 갈등해결 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23권, 2호, pp. 91-110.

성적 방법, 언쟁, 폭력에 대하여 그 사용빈도를 살펴보고 다시 종속변인으로 폭력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폭력에만 중점을 두어 살펴본 것은 엄밀히 말해 부부의 갈등관리방법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고 본다.

허윤영⁵⁴⁾의 연구는 남편의 커뮤니케이션이 해도와 갈등처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그는 갈등처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있는데, 갈등처리에 대한 개별적인 행동유형이나 범주화된 유형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지 못하고 주로 폭력과 관계된 연구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므로서 갈등처리가 폭력만으로 이루어진 느낌을 주고 있다. 게다가 갈등처리에 관한 선행연구에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까지 일부 포함시킴으로서 관점이 빗나간 선행연구도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갈등처리에 대한 척도는 Straus의 것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갈등처리 하위변인을 의논, 언쟁, 폭력의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 남편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가 높아서 대화의 분위기를 고려하고 개방적이고 호의적이며 긍정적인 태도와 안정된 인성이 가질수록 건전한 방법(의논)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고, 반대의 태도나 인성을 가진 남편은 언쟁이나 폭력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음을 보이고 있다.

정경애⁵⁵⁾의 연구는 종교 유무가 부부간의 갈등해소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연구로서, 종교(기독교)를 가진 부부와 종교가 없는 부부가 갈등 해소방법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갈등해소방법으로서 Straus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논, 대화와 말다툼, 폭력의 2개의 하위변인으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전자에는 이성적

54) 허윤영(1988), “남편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갈등처리와의 관계,”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21-50.

55) 정경애(1989), “종교 유무가 부부간의 갈등해소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30-60.

논리적으로 논의, 사고한다. 지적으로 문제 해결방법을 사용한다 이며, 후자는 언어로 혐오감을 주거나 적대감, 모욕감, 협박 등으로 상징적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가벼운 폭력, 심한 폭력 행동으로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는 왜 Straus의 3개의 범주를 2개로 조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갈등 표출방법은 더 다양화되지 못하고 이분화의 틀 속에 쉽게 속할 수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의 연구결과는 종교를 가진 부부가 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갈등 해소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갈등 관리방법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거의 대부분 Straus(1979)⁵⁶⁾의 갈등 해소방안 척도 Conflict Tactics Scale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갈등의 해소방안을 이성적 의논행동, 언쟁행동, 폭력이라는 3가지 범주에서 파악한 것이다. 각각의 범주에 드는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이성적 방법은 토론, 논쟁, 이성등 지성적인 접근으로 조용히 문제에 대해 의논한다. 해결한 정보나 다른 중재자를 찾는 다이다. 둘째, 언쟁행동은 상처를 주기 위한 상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협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모욕을 준다, 욕한다, 골낸다, 심술부린다, 운다, 때린다, 위협한다이다. 셋째, 폭력으로 육체적인 힘이나 완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을 밀거나 움켜잡거나 떠민다,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진다, 손으로 때린다, 발길질한다, 물어 뜯는다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획일적으로 사용한 이 3가지 하위변인에는 각기 포함된 행동특성이 있지만, 모든 연구마다 일률적으로 사용한 이 척도로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가족갈등의 양상을 파악하기에 너무 표면적이고 부족한 느낌이 든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갈등표출행동에 관한 연구가 거

56) M. A. Straus, Ibid., pp. 75-95.

의 단일한 한 척도를 갖고 이루어졌다는 것은 물론 연구의 축적이 없기도 하거니와 한국의 부부간의 갈등표출행동을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연구자들의 노력부족도 제기될 수 있겠다.

결국 부부간의 역동적인 갈등해결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갈등해결 방법에 대한 연구가 폭력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고, 또한 좁은 범주에서 파악하여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가족 갈등관리방법이 파악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유형을 찾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영숙⁵⁷⁾은 부부간의 지위부조화와 갈등해결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그는 갈등해결방법이란 일단 갈등이 발생한 이후 그들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조용하고 이성적인 토론에서부터 적대감 있는 폭력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나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심한 육체적 공격과 폭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부간의 갈등해결방법의 유형을 완전히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는 부부간에 만족스러운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갈등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고 갈등해결방법에 대한 유형화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 연구에서 갈등해결방법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유형화하였다. 그가 Straus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21문항을 만든 후 요인분석결과를 통하여 4가지의 갈등해결방법을 유형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적 방법, 수동적 방법, 회피, 폭력이다. 이 연구는 Straus의 척도를 수정하여 설문문항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실제의 조사대상자를 통하여 갈등해결방법을 요인 분석을 통하여 밝힘으로서 우리 나라 부부간의 갈등해결방법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는 데

57) 이영숙(1990), “부부간의 지위부조화와 갈등해결방법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 8권 1호, pp. 101-110.

연구의 의의와 진일보가 있었다고 보겠다. 여기서 건설적 방법은 Straus의 이성적 방법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피가 한국의 부부관계에서 갈등해결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길미령⁵⁸⁾은 갈등관리방법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였다. 부정적, 긍정적 가치를 지닌 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가정의 안정과 결속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부의 내재된 갈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가 사용한 갈등관리방법은 Nelson(1988)⁵⁹⁾의 Strategy Rating Measure와 Straus(1979)⁶⁰⁾의 Conflict Tactics Scale을 근간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38개의 문항을 요인 분석하여 5가지로 구성, 명명하였다. 그것은 권위형, 이기적 설득형, 환심보상형, 애정안정형, 상징적 위협형이다. 이와 같은 분류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각도에서 살핀 것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시 이를 어떻게 나타내며 해결하려 하는가 하는 행동 및 태도의 특성을 형태로 분류함으로써 보다 관리라는 개념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분류형은 보다 개인의 인성 적인 특성이 내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며, 또한 명명한 이름이 다소 어려워 쉽게 행동특성이 부각되지 않는 점이 있다.

이상의 연구를 살펴볼 때 갈등관리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고 그 방법에 있어서 단순한 행동특성보다는 관리라는 개념으로 유형화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관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그 방법으로는 스프레이가 가족 내에서의 갈등관리방법으로 제시한 것을 참고로 하여 연구의 틀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앞에서 언

58) 길미령(1993), 전계서, p. 35.

59) M. C. Nelson, "The Resolution of Conflict In Joint Purchase Decisions by Husbands and Wives a Review and Empirical Test," *Advances in Commuter Research*, Vol. 15, pp. 436-441.

60) M. A. Straus, *Ibid.*, pp. 75-95.

급한 것처럼 스프레이는 갈등론적 가족이론에서 가족성원들간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가족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관리방법을 제시하였다. 합의, 협상, 타협, 권력, 영향력, 공격, 위협, 약속, 회피 등이 그것이다.

그가 제시한 갈등관리방법은 갈등관리라는 개념과도 부합되면서, 기존의 방법들보다도 훨씬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길미령도 주목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이 갈등의 표출이나 해결방법을 적은 범주에 다루거나 혹은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폭력을 다루었다면, 위와 같이 세분화된 갈등관리방법은 폭력과 같은 물리적이고 비언어적인 방법이 아닌, 대화와 타협과 같은 언어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면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긍정적으로 보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다양한 갈등관리형태는 궁극적으로 갈등을 약화, 제거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⁶¹⁾

본 연구에서는 스프레이의 기본 갈등관리방법과 김양희의 갈등관리방법을 수정하여 한국의 갈등관리에 포괄적으로 유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61) 김양희(1993), 전게서, pp. 53-59.

제3장 연구조사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문제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내재된 갈등의 정도를 파악하고 내재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A.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부부의 갈등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B. 부부갈등의 요인(친 인척 요인, 의사소통 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인 요인, 성격적 요인, 성 역할 요인)에 따라 부부의 갈등관리방법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C.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정의 소득수준, 동거 형태, 결혼 형식, 결혼 생활기간)에 따라 부부갈등 요인에서 부부간의 갈등관리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친 시에 거주하는 한 자녀 이상을 둔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혼한 부부는 설문에서 제외하였다. 한 자녀 이상을 둔 부부로 제한한 것은 설문내용에 자녀와 관련된 의사결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녀를 두지 않은 부부들의 응답에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고 이혼한 남녀를 설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갈등이 이미 해소되어진 것(Sprey, 1969)⁶²⁾으로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2) J. Sprey, "The Family as a System in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예비조사는 2002년 4월 8일부터 2002년 4월 10일까지 15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예비설문조사결과를 기초로 설문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2002년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부천 시에 거주하는 결혼한 부부 28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80부의 설문지를 결혼한 부인과 남편들에게 아파트, 교회, 도서관, 공원, 문화센터, 일반사무실에 훈련받은 일반인이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법과, 본인이 직접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중에서 25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실 기재된 설문지 27부를 제외한 총 223명(부인 158명, 남편 65명)을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조사를 통해 갈등의 유형원인을 6개영역(① 친 인척 요인 ② 의사소통 요인 ③ 경제적 요인 ④ 성적인 요인 ⑤ 성격적 요인 ⑥ 성 역할 요인)으로 나누어서 부부갈등의 원인을 총36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각 요인들의 개념적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친 인척 요인은 6문항, 의사소통 요인은 7문항, 경제적 요인은 5문항, 성적 요인은 7문항, 성격적 요인은 6문항, 성 역할 요인은 5문항으로 총3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총 36개 문항은 동일차원 항목을 연속적으로 배열 할 경우 다음 문항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배열하였다. 6개 요인에 속한 문항번호는 다음과 같다.

① 친 인척 요인 : 8, 24, 26, 31, 33, 35 (6문항)

② 의사소통 요인 : 1, 11, 13, 16, 22, 25, 36 (7문항)

③ 경제적 요인 : 6, 12, 17, 19, 23 (5문항)

and the Family 31, 1969, pp. 669-706.

- ④ 성적인 요인 : 7, 9, 10, 15, 20, 27, 34 (7문항)
- ⑤ 성격적 요인 : 3, 4, 18, 29, 30, 32 (6문항)
- ⑥ 성역할 요인 : 2, 5, 14, 21, 28 (5문항)

위 6개영역 모두 측정기준은 5점 Likert type 척도로서 ‘매우많음’에 5점, ‘대체로 있는 편’에 4점, ‘보통’에 3점, ‘거의 없는편’에 2점, ‘전혀 없음’에 1점을 주었다. 그리고 갈등관리방법을 조사하는 방법은 각 갈등의 6개영역(친 인척 요인, 의사소통 요인, 경제적 요인, 성격적 요인, 성역할 요인)에 대해 (스프레이와 김양희연구를 기초로) 각 갈등 요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1번에 순종(주로 배우자의 의견에 따른다), 2번에 회피(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대충 처리한다), 3번에 대화(서로간에 상의해서 해결하려는 편이다), 4번에 폭력(서로에게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등 폭력을 사용하는 편이다), 5번에 무시(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 6번에 기타로 유형화시켰다,⁶³⁾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하는 표본조사의 경우 설문 문항들의 신뢰도(reliability)를 내적일관성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내적일관성법을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법에는 반분법, 크론바흐의 알파계수, 개별항목-전체항목의 평균, 항목별 평균 등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크론바흐(1951)의 알파(Cronbach's α)계수에 의해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신뢰도의 척도인 알파계수는 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 또는 문항들이 서로 얼마나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끼리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수치로서,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0.60 이상이면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전체

63) 김양희가 제시한 갈등관리방법은 복종, 회피, 합의, 협박, 폭력, 기타이다. 본 연구는 김양희의 합의를 대화로, 협박과 폭력을 폭력으로 합하고, 무시를 첨가하였다.

항목을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3-1> 에서와 같이 부부갈등 요인 6가지들의 Cronbach's α 값이 0.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Cronbach's α 값이 .93으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신뢰도 분석

		문항 수	크론바하 α 값
부부갈등	친 인척 요인	6	.769
	의사소통 요인	7	.775
	경제적 요인	5	.691
	성적 요인	7	.777
	성격적 요인	6	.805
	성 역할 요인	5	.675
전체		36	.9325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방법은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며, 통계처리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ver.10.0 : SPSS Inc., 20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기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분석에 앞서 측정된 표본자료가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즉 측정자료가 안정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nce; 변수척도-평균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를 산정 검토하였다. 또한 변수항목 구성의 내적 합치 도를 검토하기 위해 알파계수법(Cronbach's alpha)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로 전체적인 응답경향과 분포를 살펴 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전체 항목의 빈도, 퍼

센트, 평균, 등을 산출하였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이용자의 반응 차이가 가지는 통계적 유의 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다. 또한 특정한 변수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교차분석을 하였다.

제4장 분석 및 결과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변 수	집 단	빈도(백분율)	변 수	집 단	빈도(백분율)
남편의 연령	30세이하	5 (7.7)	부인의 연령	30세이하	13 (8.2)
	31-35세	10 (15.4)		31-35세	36 (22.8)
	36-40세	22 (33.8)		36-40세	59 (37.3)
	41-45세	13 (20.0)		41-45세	30 (19.0)
	45세이상	15 (23.1)		45세이상	20 (12.7)
남편의 직업	대기업주/자본가	3 (4.6)	부인의 직업	대기업주/자본가	0 (0)
	전문직/관리직	14 (21.5)		전문직/관리직	17 (10.8)
	사무직/기술직	21 (32.3)		사무직/기술직	26 (16.5)
	상공업/자영업	21 (32.3)		상공업/자영업	27 (17.1)
	피고용 기능공	3 (4.6)		피고용 기능공	4 (2.5)
	단순노무직	0 (0)		단순노무직	4 (2.5)
	무 직	3 (4.6)		무 직	80 (50.6)
가정의 소득 수준	100만원이하	3 (1.3)	동거 형태	시부모동거	16 (7.2)
	101-200만원	45 (20.2)		처부모동거	8 (3.6)
	201-300만원	80 (35.9)		핵 가 족	183 (82.1)
	301-400만원	59 (26.5)		시댁의 식구 동거	6 (2.7)
	400만원이상	36 (16.1)		처의식구동거	10 (4.5)
남편의 교육 수준	초 졸	0 (0)	부인의 교육 수준	초 졸	1 (0.6)
	중 졸	1 (1.5)		중 졸	9 (5.7)
	고 졸	18 (27.7)		고 졸	74 (46.8)
	초/전문대졸	35 (53.8)		초/전문대졸	23 (14.6)
	대학졸	48 (30.4)		대학졸	48 (30.4)
	대학원졸	3 (4.6)		대학원졸	3 (1.9)
계		223 (100)	계		223 (100)

<표 4-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변수	집단	빈도 (백분율)	변수	집단	빈도 (백분율)
결혼형식	중매결혼	72 (32.3)	결혼생활기간	1-5년	24 (10.8)
	연애결혼	151(67.7)		6-10년	75 (33.6)
종교별	기독교	116 (52.0)		11-15년	64 (28.7)
	천주교	18 (8.1)		16-20년	34 (15.2)
	불교	22 (9.9)		21년 이상	26 (11.7)
	기타	3 (1.3)			
	무교	64 (28.7)			
계		223 (100)	계		223 (10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낸 것은 <표 4-1>과 <표 4-2>과 같다.

남편의 연령은 30세 이하가 7.7%, 31-35세가 15.4%, 36-40세가 33.8%, 41-45세가 20%, 45세 이상이 23.1%로 30대와 40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부인의 연령은 30세 이하가 8.2%, 31-35세가 22.8%, 36-40세가 37.3%, 41-45세가 19%, 45세 이상이 20%로 부인의 연령 역시 30대와 40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남편의 직업은 대기업주/자본가가 4.6%, 전문직/관리직이 21%, 사무직/기술직이 21%, 상공업/자영업이 21%, 피고용 기능공이 4.6%, 단순노무직은 0%, 무직 4.6%로 나타났다.

부인의 직업으로는 전문직/관리직이 10.8%, 사무직/기술직이 16.5%, 상공업/ 자영업이 17.1%, 피고용 기능공이 2.5%, 단순노무직이 2.5%, 무직(주부)이 50.6%로 길미령(1990)의 연구에서 73.5%가 주부인데 비해 다소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가족의 소득으로는 100만원이하가 1.3%, 101-200만원이 20.2%,

201-300만원이 35.9%, 301-400만원이 26.5%, 400만원이상이 16.1%로 나타났다.

가족의 동거 형태로는 핵가족이 82.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중졸이 1.5%, 고졸이 27.7%, 초/전문대졸이 53.8%, 대학 졸이 30.4%, 대학원 졸이 4.6%로 남편의 교육수준을 볼 때 초/전문대 포함 대학졸업이상이 88.8%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교육수준은 초졸 0.6%, 중졸이 5.7%, 고졸이 46.8%, 초전문대졸이 14.6%, 대학 졸이 30.4%, 대학원 졸이 1.9%로 나타나 부인의 교육수준도 초/전문대 포함 대학졸업이상이 46.9%로 나타나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남편들에 비해서는 교육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형식을 볼 때 67.7%가 연애결혼으로 나타나 결혼의 형식이 매우 자유로와 진 것을 볼 수 있다.

종교의 유무를 볼 때 71.3%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생활기간을 볼 때 1-5년이 10.8%, 6-10년이 33.6%, 11-15년이 28.7%, 16-20년이 15.2% 21년 이상이 11.7% 로 나타났다.

자녀수와 나이 차는 설문조사중 오류가 발생하여 일반적 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위의 일반적 특성을 볼 때, 젊은 30-40대 부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결혼 기간도 6년에서 20년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제2절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부부의 갈등정도 분석

연구문제 A :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부부의 갈등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1. 연령

연령에 따른 부부갈등의 정도를 살펴 보면 <표 4-3>과 같다.

<표 4-3> 연령에 따른 부부갈등정도 차이분석(ANOVA)

		N	%	친인척 요인	의사소 통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인 요인	성격적 요인	성역할 요인
남편의 연령	30세이하	5	7.7	2.06	3.52	2.40	3.36	2.88	2.44
	31-35세	10	15.4	1.68	2.01	1.92	2.10	2.05	2.04
	36-40세	22	33.8	1.85	2.50	2.35	2.40	2.35	2.30
	41-45세	13	20.0	1.58	2.14	2.01	2.0	2.14	2.24
	45세이상	15	23.1	2.04	2.37	1.87	2.38	2.50	2.37
	F			1.222	1.370	2.354	0.194	0.400	0.687
부인의 연령	30세이하	13	8.2	2.27	2.48	2.30	1.90	2.03	2.27
	31-35세	36	22.8	2.33	2.34	2.49	2.48	2.33	2.51
	36-40세	59	37.3	2.34	2.58	2.13	2.30	2.28	2.51
	41-45세	30	19.0	2.15	2.39	2.08	2.35	2.20	2.24
	45세이상	20	12.7	2.15	2.35	2.12	2.21	2.31	2.23
F			0.475	0.797	0.190	1.066	0.679	1.076	

*p<.05 **p<.01 ***p<.001

<표 4-3>에 의하면 부부갈등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낸 것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5점에 가까운 점수보다는 평균값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으로 내적인 문제이기에 쉽게 표현하기를 꺼리고 갈등이 있어도 “매우 많음” 5점에 표기하기보다는 평균에 가까운 3점을 기준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측정 결과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하겠다.

먼저 남편의 연령에 따른 갈등정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느끼는 갈등은 의사소통 요인과 성적인 요인, 성격적 요인, 성역할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친 인척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갈등이 대체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은 남자들은 친 인척 문제에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경제적 요인은 본인이 대부분 직업을 갖고 부인에게 월급을 갖다 주는 형태이므로 별 갈등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남편의 연령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갈등은 30세 이하에서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이 3.52점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30세 이하들이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인 문제에서도 30세 이하에서 3.36점으로 높은 갈등을 보였는데 이것 또한 30세 이하의 남자들이 성적으로 왕성한 시기임으로 부인과 갈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부인의 연령으로 갈등의 정도를 살펴보면, 부인들의 연령에서 대체적으로 갈등이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의사소통요인과 성역할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 따른 부부갈등요인에 대해 제시된 <표 4-3>의 평균값은 95% 신뢰 수준 하에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수준

<표 4-4> 교육수준에 따른 부부갈등정도 차이분석(ANOVA)

		N	%	친인 척요 인	의사 소통 요인	경제 적 요 인	성적 요인	성격적 요인	성역할 요인
남편 의 교 육수 준	초 졸	0	0	0	0	0	0	0	0
	중 졸	1	1.5	0.85	1.85	1.80	2.14	1.66	3.00
	고 졸	18	27.7	2.48	2.48	2.33	2.41	1.37	2.36
	초/전문대졸	8	12.3	2.25	2.51	1.85	2.53	2.66	2.50
	대학졸	35	53.8	1.98	2.24	2.09	2.23	2.20	2.18
	대학원졸	3	4.6	2.22	2.00	1.66	1.71	1.61	2.00
F				0.207	0.862	1.452	0.714	1.978	2.068
부인 의 교 육수 준	초 졸	1	0.6	4.00	2.57	3.60	2.85	3.33	3.20
	중 졸	9	5.7	2.25	2.47	2.60	2.44	2.61	2.64
	고 졸	74	46.8	2.29	2.52	2.15	2.30	2.28	2.41
	초/전문대졸	23	14.6	2.32	2.36	2.25	2.15	2.24	2.16
	대학졸	48	30.4	2.18	2.36	2.00	2.14	1.96	2.24
	대학원졸	3	1.4	2.44	2.71	2.00	2.38	2.27	2.47
F				1.993	1.831	3.093*	1.277	4.322**	3.381**
계		223	100	5					

*p<.05 **p<.01 ***p<.001

위의 <표 4-4> 교육수준에 따른 부부갈등을 살펴보면, 남편의 교육수준에 살펴보면, 대체로 고졸과 초/전문대졸에서 갈등이 점수가 높게 나왔다. 경제적 요인을 볼 때 초/전문대졸업과 대학원이상에는 경제적 요

인에 대한 갈등이 낮게 나타났다.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부갈등을 보면,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갈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인 갈등요인을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인 것으로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성역할역시 교육수준과도 영향이 있음을 나타났다.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갈등의 정도가 대체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부부갈등 요인에 대해 제시된 <표 4-4>의 평균값은 95% 신뢰 수준 하에서 남편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으나 부인의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경제적 요인, 성격적 요인, 성역할 요인간에는 평균값간에 95% 신뢰 수준 하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직업

<표 4-5> 직업에 따른 부부갈등정도 차이분석(ANOVA)

		N	%	친 인 척 요 인	의사소 통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인 요인	성격적 요인	성역할 요인
남편 의 직업	기업주/자본가	3	4.6	2.28	2.57	2.27	2.38	2.50	2.40
	전문직/관리직	14	21.5	1.90	2.35	2.19	2.18	2.33	2.24
	사무직/기술직	21	32.3	2.23	2.20	2.24	2.41	2.14	2.29
	상공업/자영업	21	32.3	2.11	2.31	2.14	2.24	2.22	2.27
	피고용 기능공	3	4.6	2.00	2.04	1.73	2.04	2.11	2.06
	단순노무직	0	0	0	0	0	0	0	0
	무직	3	4.6	3.05	3.23	2.73	2.47	3.27	2.46
F				1.848	0.941	1.631	0.667	0.768	0.549
부인 의 직업	기업주/자본가	0	0	0	0	0	0	0	0
	전문직/관리직	17	10.8	2.01	2.56	2.03	2.33	2.21	2.37
	사무직/기술직	26	16.5	2.19	2.35	2.06	2.05	2.14	2.24
	상공업/자영업	27	17.1	2.33	2.53	2.17	2.37	2.40	2.50
	피고용기능공	4	2.5	2.91	2.82	2.95	2.70	2.54	2.75
	단순노무직	4	2.5	3.12	2.96	2.90	3.37	2.75	2.90
	주 부	80	50.6	2.23	2.39	2.12	2.21	2.11	2.26
F				1.938	0.534	0.852	2.178*	3.520**	1.182
계		223	100	5					

*p<.05 **p<.01 ***p<.001

위의 <표 4-5> 에 따르면 직업에 따른 부부갈등정도를 보면, 남편들은 직업에 따라 갈등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부인들의 직업에 따르면 대체로 고루게 분포되어 있는데 대체로 의사소통요인에서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갈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피고용기능공과 단순 노무직에 근무하는 부인의 경우 갈등이 더 많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인의 직업 유무도 다양해져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직업이 없는 주부에 비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더 갈등을 느끼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것은 과거에 살림만 하던 주부들이 참고 살면서 갈등을 느끼던 것과는 달리 맞벌이를 통해 역할 분담이나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한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에 따른 부부갈등요인에 대해 제시된 <표 4-5>의 평균값은 95% 신뢰 수준 하에서 남편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으나 부인의 직업에 대해서는 성적 요인, 성격적 요인간에는 평균값간에 95% 신뢰 수준 하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가정의 소득수준

<표 4-6>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갈등정도 차이분석(ANOVA)

		N	%	친인척 요인	의사소 통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인 요인	성격적 요인	성역할 요인
가정 의 소 득 수 준	100만원이하	3	1.3	1.33	1.57	1.25	1.39	1.16	1.55
	101-200만원	45	20.2	2.22	2.27	2.11	2.26	2.20	2.09
	201-300만원	80	35.9	2.22	2.41	2.28	2.22	2.19	2.36
	301-400만원	59	26.5	2.10	2.34	2.04	2.27	2.23	2.33
	400만원이상	36	16.1	2.24	2.32	2.12	2.41	2.17	2.22
F				1.156	0.350	0.707	0.524	0.554	0.750

*p<.05 **p<.01 ***p<.001

위의 <표 4-6>에서 보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부부갈등정도를 보면 대체로 갈등이 거의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100만원이하에서 오히려 갈등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100만원 이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로 인해 경제적인 것과 갈등이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는 없을 것 같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이 대체로 높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정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기에 그에 따른 갈등의 정도가 심하지 않게 나타나지 않나 싶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안정은 갈등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른 부부갈등 요인에 대해 제시된 <표 4-6>의 평균값은 95% 신뢰 수준 하에서 평균값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5. 결혼형식

<표 4-7> 결혼형식에 따른 갈등정도 차이분석(T-TEST)

		N	%	친인척 요인	의사소 통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인 요인	성격적 요인	성역할 요인
결혼형 식	중매결혼	72	32.3	2.26	2.46	2.11	2.40	2.27	2.25
	연애결혼	151	67.7	2.22	2.39	2.19	2.19	2.20	2.36
T				0.353	-0.779	-0.315	2.030*	0.668	-0.208
계		223	100	5					

*p<.05 **p<.01 ***p<.001

위의 <표 4-7>에 의하여, 결혼형식에 따른 부부갈등정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차이가 없으나, 성적인 문제에서 *p<0.05로 나타나 중매 결혼한 부부가 성적으로 갈등이 있음으로 나타났다. 성적인 문제는 특히 서로가 표현하기를 꺼려 하는 부분임으로 중매 결혼에서 성적인 부분을 서로에게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위의 결혼형식에 따른 부부갈등요인에 대해 제시된 <표 4-7>의 평균

값은 95% 신뢰 수준 하에서 평균값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6. 종교

<표 4-8> 종교에 따른 부부갈등정도 차이분석(ANOVA)

		N	%	친인척 요인	의사소 통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인 요인	성격적 요인	성역할 요인
종교별	기독교	116	52.0	2.19	2.31	2.04	2.16	2.14	2.24
	천주교	18	8.1	2.50	2.95	1.90	2.82	2.50	2.67
	불교	22	9.9	1.96	2.31	2.10	2.09	2.22	2.06
	기타	3	1.3	2.72	2.57	2.27	2.61	2.50	2.33
	무교	64	28.7	2.32	2.47	2.34	2.32	2.28	2.46
F				1.922	0.461	1.827	4.362**	1.172	0.429
계		223	100	5					

*p<.05 **p<.01 ***p<.001

<표 4-8>에 의하면 종교에 따라 부부간의 갈등정도가 심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천주교에 속해 있는 부부들이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교에 속한 부부들은 갈등이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의 갈등정도는 천주교에 속한 부부들이 대체로 갈등이 낮게 나타났다.

종교에 따른 부부갈등 요인에 대해 제시된 <표 4-8>의 평균값은 95% 신뢰 수준 하에서 성적인 요인을 제외하고는 평균값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7. 결혼생활 기간

<표 4-9> 결혼생활 기간에 따른 부부갈등정도 차이분석(ANOVA)

		N	%	친인척 요인	의사소 통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인 요인	성격적 요인	성역할 요인
결혼생 활기간	1-5년	24	10.8	2.18	2.29	2.20	1.90	1.97	2.18
	6-10년	75	33.6	2.25	2.36	2.12	2.23	2.15	2.28
	11-15년	64	28.7	2.30	2.57	2.21	2.34	2.30	2.47
	16-20년	34	15.2	2.18	2.29	2.02	2.31	2.27	2.25
	21년이상	26	11.7	2.17	2.45	2.32	2.38	2.43	2.32
F				0.229	0.077	0.806	2.086	1.536	0.092

*p<.05 **p<.01 ***p<.001

<표 4-9> 결혼생활기간에 따른 부부갈등정도를 보면 대체로 갈등의 정도가 비슷한 점수를 보이지만, 1-5년에서, 의사소통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났고, 6-10년에서, 의사소통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역할 요인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고, 11-15년에서, 의사소통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성역할 요인으로 나타났다. 16-20년에서 의사소통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격적 요인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21년이 상에서는 의사소통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성격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의사소통에서 갈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성역할 요인, 성격적 요인의 갈등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생활기간에 따른 부부갈등정도의 평균값은 95% 신뢰 수준 하에서 평균값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8. 동거 형태

동거형태에 따른 부부갈등의 정도는 <표 4-10>와 같다.

<표 4-10> 동거 형태에 따른 부부갈등정도 차이분석(ANOVA)

		N	%	친인척 요인	의사소 통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인 요인	성격적 요인	성역할 요인	
동거 형태	시부모 동거	16	7.2	2.29	2.19	1.98	2.00	2.15	2.22	
	처부모 동거	8	3.6	2.47	2.64	2.67	2.39	2.43	2.87	
	핵가족	183	82.1	2.22	2.42	2.15	2.27	2.21	2.29	
	시댁 식구동거	6	2.7	2.52	2.21	2.50	2.38	2.13	2.26	
	처의 식구동거	10	4.5	2.40	2.65	2.30	2.34	2.46	2.26	
F				0.514	0.564	0.302	0.700	0.463	0.379	
합계		223	100	5						

*p<.05 **p<.01 ***p<.001

위에서 동거형태에 따른 부부갈등을 살펴보았다. 동거 형태로는 핵가족이 대부분의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핵가족에서는 갈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시댁의 식구나 처의 식구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대체로 갈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대체로 시댁식구보다도 처의 식구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더 많은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부부갈등의 정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갈등의 분포가 고루게 분포되어 있었고, 심한 차이는 없었지만, 대체로 의사 소통의 요인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거기간에 따른 부부갈등요인에 대해 제시된 <표 4-10>의 평균값은 95% 신뢰 수준 하에서 평균값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부부간의 갈등관리 형태분석

연구문제 B : 부부갈등의 하위요인(친 인척 요인, 의사소통 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 요인, 성격적 요인, 성 역할 요인)에 따라 부부의 갈등관리 형태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1. 친 인척 요인 부부갈등 관리방법

친 인척 요인에 따른 부부갈등 관리방법이 남편과 부인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면 <표 4-11>과 같다.

<표 4-11> 친 인척 요인에 따른 부부갈등 관리방법

구 분	남 편 (65)		부 인(158)	
	N	%	N	%
복 중	8	12.3	17	10.8
회 피	13	20.0	39	24.7
대 화	42	64.6	88	55.7
폭 력	0	0	2	1.3
무 시	0	0	10	6.3
기 타	2	3.1	2	1.3
$\chi^2=3.010$ $df=5$ $p=.698$				

*p<.05, **p<.01, ***p<.001

위의 결과로 볼 때 친 인척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이나 부인모두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이 회피가 나왔는데 이것은 서로가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냥 회피해 버린다고 볼 수 있겠다. 친 인척 문제로 인한 갈등에서 오히려 남편이 더 대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자 보단 남자가 친 인척 문제로 갈등이 적게 느끼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친 인척 요인에 대한 갈등관리방법에서는 배우자의 의견에 따르는 복

종으로 갈등을 관리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유의수준은 0.69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친 인척문제로 인한 갈등관리방안에 성별로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 의사 소통요인 부부갈등 관리방법

의사소통요인에 따른 부부갈등관리방법은 <표 4-12>와 같다.

<표 4-12> 의사소통 요인에 의한 갈등관리방법

성 별	남 편 (65)		부 인 (158)	
	N	%	N	%
갈등관리방법				
복 종	4	6.2	12	7.6
회 피	18	27.7	48	30.4
대 화	40	61.5	77	48.7
폭 력	0	0	3	1.9
무 시	3	5	13	8.2
기 타	0	0	5	3.2
$\chi^2=5.814$ $df=5$ $p=.325$				

$p<.05$, $**p<.01$, $***p<.001$

위의 <표 4-12>에 의한 의사소통에 의한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남편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61.5%, 회피가 27.7%, 복종이 6.2%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대화로 갈등을 해소하는 경우가 48.7%로 남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회피하는 경우 30.4%,로 남편에 비해 회피가 조금 높게 나타났고, 복종은 7.6%로 남편보다 조금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남편들이 부인의 경우보다 더 대화로 갈등을 해결한다는 응답이 나타났고, 부인들은 회피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는데, 대화도중에 감정이 격해질 경우 부인들은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p=0.325$ 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경제적 요인 갈등관리방법

경제적 요인에 의한 갈등관리 방법은 <표 4-13>와 같다.

<표 4-13> 경제적 요인에 의한 부부갈등관리방법

성 별	남 편 (65)		부 인 (158)	
	N	%	N	%
복 종	4	6.2	12	7.6
회 피	17	26.2	48	30.4
대 화	39	60.0	77	48.7
폭 력	0	0	3	1.9
무 시	3	5	13	8.2
기 타	3	5	5	3.2
$\chi^2=8.090$ $df=5$ $p=.151$				

$p<.05$, $**p<.01$, $***p<.001$

위의 <표 4-13> 경제적 요인에 따른 부부갈등관리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남편들은 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인의 경우 역시 대화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이나 부인 모두 대화 다음으로는 회피를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에 갈등의 해결방법을 폭력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여자들은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갈등관리방법으로 회피를 해결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남편이 경제를 담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인의 입장에서 회피를 함으로써 갈등을 해

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 성적 요인 부부갈등관리방법

성적 요인 의한 부부갈등 관리방법은 <표 4-14>와 같다.

<표 4-14> 성적 요인에 의한 부부갈등관리방법

성 별	남 편		부 인	
	N	%	N	%
복 종	10	15.4	27	17.1
회 피	10	15.4	44	27.8
대 화	42	64.6	66	41.8
폭 력	0	0	1	0.6
무 시	1	2	7	4.4
기 타	2	3.1	13	8.2
$\chi^2=9.983$		df=5	p=.076	

p<.05, **p<.01, ***p<.001

위의 <표 4-1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적 요인에 의한 갈등관리방법에 대해서 남편은 대체로 대화로 해결하려하고 있고, 복종과 회피도 다른 부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를 보면 대화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남편의 의사에 따르거나 회피하는 경향도 40%를 넘어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부인들은 남편과 대화하기를 꺼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성격적 요인 부부갈등 관리방법

성격적 요인에 의한 부부갈등관리를 보면 <표 4-15>과 같다.

<표 4-15> 성격적 요인에 의한 부부갈등관리방법

성 별	남 편		부 인	
	N	%	N	%
갈등관리방법				
복 종	2	3.1	13	8.2
회 피	15	23.1	51	32.3
대 화	39	60.0	71	44.9
폭 력	2	3	5	3.2
무 시	5	8	11	7.0
기 타	2	3.1	7	4.4
$\chi^2=5.497$		df=5	p=.358	

p<.05, **p<.01, ***p<.001

<표 4-15> 를 보면 성격적 요인에 의한 부부갈등 관리방법에서 남편의 경우 갈등의 해결을 60%로는 대화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3.1%는 회피로 해결하고 있다. 부인의 성격적 요인에 의한 갈등해결방법은 대화와 회피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화로 44.9%, 회피로 32.3%로 나타났다. 성격적인 갈등관리방법으로는 부인의 입장에서 폭력과 무시가 다른 갈등요인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성격적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아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6. 성 역할 요인 부부갈등 관리방법

성 역할 요인에 의한 부부갈등 관리방법을 보면 <표 4-16>과 같다.

<표 4-16> 성 역할 요인에 의한 부부갈등관리방법

성 별	남 편 (65)		부 인 (158)	
	N	%	N	%
갈등관리방법				
복 종	2	3.1	9	5.7
회 피	12	18.5	47	29.7
대 화	43	66.2	84	53.2
폭 력	2	3	4	2.5
무 시	3	5	11	7.0
기 타	3	5	3	1.9
$\chi^2=5.940$		df=5	p=.312	

p<.05, **p<.01, ***p<.001

<표 4-16> 에 의한 성역할에 의한 부부갈등관리방법을 보면 남편의 경우 대화가 66.6%로 높게 나타났다. 회피는 18.5%로 성 역할 요인에 의한 갈등관리방법도 대화와 회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갈등관리를 보면 성역할 요인에 의한 갈등관리방법으로 53.2%가 대화로 나타났고, 29.7%가 회피로 갈등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절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갈등관리분석

연구문제 C : 인구통계학적변수(가정의 소득, 결혼기간, 동거가족, 결혼형태)에 따라 부부갈등 요인에서 부부간의 갈등관리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1. 경제적 문제에 따른 갈등관리 방법

<표 4-17> 경제적 문제에 따른 소득수준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경제적 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가정의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2				1	3
			0.9%				0.4%	1.3%
	101-200만원	5	6	32	1	1		45
		2.2%	2.7%	14.3%	.4%	.4%		20.2%
	201-300만원	9	18	49	2	1	1	80
		4.0%	8.1%	22.0%	.9%	.4%	.4%	35.9%
	301-400만원	2	10	43	2	1	1	59
		.9%	4.5%	19.3%	.9%	.4%	.4%	26.5%
	400만원 이상	9	3	23		1		36
		4.0%	1.3%	10.3%		.4%		16.1%
합계		25	39	147	5	4	3	223
		11.2%	17.5%	65.9%	2.2%	1.8%	1.3%	100.0%

$\chi^2=45.662$ $df=20$ $p=.001$

*P<0.05, **P<0.01, ***P<0.001

<표 4-17>에 의하여 경제적 문제에 따른 가정의 소득수준 부부갈등 관리방법을 살펴보면, 가정의 소득수준이 201-300만원에서 22.0%, 대화로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1-400만원에서는 19.3%, 101-200만원에서는 14.3%, 400만원이상에서는 10.3%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100만원이하에서 0.9%, 101-200만원에서 2.7%, 201-300만원에서 4.5%, 400만원이상에서는 1.3%로 나타나 301-400만원에서 회피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복종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101-200만원에

서 2.2%, 201-300만원에서 4.0%, 301-400만원에서 0.9%, 400만원 이상에서는 4.0%로 나타났다.

폭력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 보면, 101-200만원에서 0.4%, 201-300만원에서 0.9%, 301-400만원에서 0.9%로 나타났고, 무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각각 0.4%로 나타났다. 경제적 문제에 따른 소득 수준 갈등 관리의 P=.001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경제적 문제에 따른 결혼기간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경제적 문제						Total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결혼 기간	1-5년	2	4	14	2	1	1	24
		.9%	1.8%	6.3%	.9%	.4%	.4%	10.8%
	6-10년	13	13	47			2	75
		5.8%	5.8%	21.1%			.9%	33.6%
	11-15년	7	11	43	3			64
		3.1%	4.9%	19.3%	1.3%			28.7%
	16-20년	2	4	27		1		34
		.9%	1.8%	12.1%		.4%		15.2%
	21년 이상	1	7	16		2		26
		.4%	3.1%	7.2%		.9%		11.7%
합계		25	39	147	5	4	3	223
		11.2%	17.5%	65.9%	2.2%	1.8%	1.3%	100.0%

$\chi^2=29.449$ $df=20$ $p=.079$

*P<0.05, **P<0.01, ***P<0.001

<표 4-18>에 의하여 경제적 문제에 따른 결혼기간의 부부갈등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결혼기간 1-5년에서 대화가 6.3%, 회피가 1.8%, 복종이 0.9%, 무시가 0.4%, 기타가 0.4%로 나타났고, 6-10년에는 대화가 21.1%, 회피와 복종에서 각각 5.8%, 기타가 0.9%로 나타났으며, 11-15년

은 대화가 19.3%, 회피가 4.9%, 복종이 3.1%로 나타났다. 16-20년에는 대화가 12.1%, 회피가 1.8%, 복종이 0.9%, 무시가 0.4%로 나타났고, 21년 이 상에서는 대화가 7.2%, 회피가 3.1%, 복종이 0.4%로 무시가 0.9%로 나타났으며 P=0.079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경제적 문제에 따른 동거 형태 부부갈등 관리방법

		경제적 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동거 형태	시부모	4	3	9				16	
		1.8%	1.3%	4.0%				7.2%	
	처부모		5	3				8	
			2.2%	1.3%				3.6%	
	핵가족	19	29	123	5	4	3	183	
		8.5%	13.0%	55.2%	2.2%	1.8%	1.3%	82.1%	
	시댁식구	1	1	4				6	
		.4%	.4%	1.8%				2.7%	
	처의 식구	1	1	8				10	
		.4%	.4%	3.6%				4.5%	
	합계		25	39	147	5	4	3	223
			11.2%	17.5%	65.9%	2.2%	1.8%	1.3%	100.0%
		$\chi^2=17.960$ $df=20$ $p=.590$							

*P<0.05, **P<0.01, ***P<0.001

<표 4-19> 에 의하여 경제적 문제에 따른 동거형태 부부갈등 관리를 살펴보면,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대화가 4.0%, 회피가 1.3%, 복종이 1.8%로 나타났고, 처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 대화가 1.3%, 회피가 2.2%로 나타났고, 핵가족의 경우 대화가 55.2%, 회피가 13.0%, 복종이 8.5%, 폭력이 2.2%, 무시가 1.8%, 기타가 1.3%로 나타났고, 시댁식구와 동거하는 경우 대화가 1.8%, 회피가 0.4%, 복종이 0.4%로 나타났고, 처

의 식구와 동거하는 경우 대화가 3.6%, 회피가 0.4%, 복종이 0.4%로 나타나 핵가족에서 대체로 대화로 갈등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핵가족에서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서 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골고루 나타나 다른 동거형태와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P=0.590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경제적 문제에 따른 결혼형식 부부갈등 관리방법

		경제적 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결혼 형식	중매	9 4.0%	13 5.8%	45 20.2%		4 1.8%	1 .4%	72 32.3%
	연애	16 7.2%	26 11.7%	102 45.7%	5 2.2%		2 .9%	151 67.7%
합계		25 11.2%	39 17.5%	147 65.9%	5 2.2%	4 1.8%	3 1.3%	223 100.0%
		$\chi^2=11.140$ $df=5$ $p=.049$						

*P<0.05, **P<0.01, ***P<0.001

<표 4-20>에 의하여 경제적 문제에 따른 결혼형식 부부갈등 관리방법을 살펴보면 중매 결혼에서 대화가 20.2%, 회피가 5.8%, 복종이 4.0%, 무시가 1.8%, 기타 0.4%로 나타났다.

연애결혼에서는 대화가 45.7%, 회피가 11.75%, 복종이 7.2%, 기타 0.9%로 나타났다. 여기서 보면 결혼 형식에 따른 부부갈등 관리 방법에서는 연애결혼에서 대화가 훨씬 높게 나타나 아무래도 연애결혼일 경우 부부간의 대화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결과에서 P=0.49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친 인척 문제에 따른 부부갈등 관리방법

<표 4-21> 친 인척 문제에 따른 소득수준 부부갈등 관리방법

		친 인척 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가정의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1		1	1	3
				.4%		.4%	.4%	1.3%
	101-200만원	3	12	28		2		45
		1.3%	5.4%	12.6%		.9%		20.2%
	201-300만원	9	21	47	1	2		80
		4.0%	9.4%	21.1%	.4%	.9%		35.9%
3001-400만원	7	11	34	1	4	2	59	
	3.1%	4.9%	15.2%	.4%	1.8%	.9%	26.5%	
400만원 이상	6	9	17		3	1	36	
	2.7%	4.0%	7.6%		1.3%	.4%	16.1%	
합계		25	53	127	2	12	4	223
		11.2%	23.8%	57.0%	.9%	5.4%	1.8%	100.0%

$\chi^2=32.716$ $df=20$ $p=.036$

*P<0.05, **P<0.01, ***P<0.001

<표 4-21> 에 의하여 친 인척 문제에 따른 가정의 소득수준 부부갈등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100만원이하에서 대화가 0.4%, 무시가 0.4%, 기타 0.4%, 101-200만원에서는 대화가 12.6%, 회피가 5.4%, 복종이 1.3%, 무시가 0.9%, 201-300만원에서는 대화가 21.1%, 회피가 9.4%, 복종이 4.0%, 폭력이 0.4%, 무시가 0.9%, 301-400만원에서는 대화가 7.6%, 회피가 4.9%, 복종이 3.1%, 폭력이 0.4%, 무시가 1.8%, 기타가 0.9%, 400만원 이상에서는 대화가 7.6%, 회피가 4.0%, 복종이 2.7%, 무시가 1.3%, 기타가 0.4%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도 친 인척 문제에 따른 갈등관리 방법에서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화의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P=0.036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친 인척 문제에 따른 결혼기간 부부갈등 관리 방법

		친 인척 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결혼 기간	1-5년		1	20	1		2	24
			.4%	9.0%	.4%		.9%	10.8%
	6-10년	10	20	42		3		75
		4.5%	9.0%	18.8%		1.3%		33.6%
	11-15년	7	21	28	1	5	2	64
		3.1%	9.4%	12.6%	.4%	2.2%	.9%	28.7%
	16-20년	5	5	22		2		34
		2.2%	2.2%	9.9%		.9%		15.2%
	21년 이상	3	6	15		2		26
		1.3%	2.7%	6.7%		.9%		11.7%
합계		25	53	127	2	12	4	223
		11.2%	23.8%	57.0%	.9%	5.4%	1.8%	100.0%

$\chi^2=31.860$ $df=20$ $p=.045$

*P<0.05, **P<0.01, ***P<0.001

<표 4-22> 에 의하여 친 인척 문제에 따른 결혼기간 부부갈등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1-5년에 대화가 9.0%, 회피가 0.4%, 폭력이 0.4%, 기타가 0.9%, 6-10년에는 대화가 18.8%, 회피가 9.0%, 복종이 4.5%, 무시가 1.3%, 11-15년에는 대화가 12.6%, 회피가 9.4%, 폭력이 0.4%, 무시가 2.2%, 기타 0.9%로 나타났고, 16-20년에는 대화가 9.9%, 회피가 2.2%, 복종이 2.2%, 무시가 0.9%로 나타났고, 21년 이상에서는 대화가 6.7%, 회피가 2.7%, 복종이 1.3%, 무시가 0.9%로 나타나 대부분이 대화

로 갈등을 관리하고 있음이 나타났고, 6-15년에서 복종과 회피의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로 볼 때 친 인척 문제로 인한 결혼기간에 따라 갈등관리의 방법에서 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P=0.045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친 인척 문제에 따른 동거형태 부부갈등 관리방법

		친 인척 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동거 형태	시부모	1	3	10		1	1	16	
		.4%	1.3%	4.5%		.4%	.4%	7.2%	
	처부모	2	2	3	1			8	
		.9%	.9%	1.3%	.4%			3.6%	
	핵가족	18	45	106		11	3	183	
		8.1%	20.2%	47.5%		4.9%	1.3%	82.1%	
	시댁식구	1	1	3	1			6	
		.4%	.4%	1.3%	.4%			2.7%	
	처의 식구	3	2	5				10	
		1.3%	.9%	2.2%				4.5%	
	합계		25	53	127	2	12	4	223
			11.2%	23.8%	57.0%	.9%	5.4%	1.8%	100.0%
		$\chi^2=40.719$ $df=20$ $p=.004$							

*P<0.05, **P<0.01, ***P<0.001

<표 4-23> 에 의하여 친 인척 문제에 따른 동거형태 부부갈등 관리방법을 살펴보면,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대화가 4.5%, 회피 1.3%, 복종0.4%, 무시가 0.4%, 기타 0.4%, 처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대화 1.3%, 회피 0.9%, 복종 0.9%, 폭력 0.4%로 나타났다. 핵가족의 경우 대화가 47.5%, 회피 20.2%, 복종 8.1%, 무시4.9%, 기타 1.3%로 나타났고, 시댁

식구와 동거하는 경우 대화 1.3%, 회피 0.4%, 복종 0.4%, 폭력 0.4%로 나타났다. 처의 식구와 동거하는 경우 대화가 2.2%, 복종 1.3%, 회피 0.9%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핵가족이 가장 높게 대화로 갈등을 관리하고 있음이 나타났고, P=0.004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표 4-24> 친 인척 문제에 따른 결혼 형식 부부갈등 관리방법

		친 인척 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결혼 형식	중매	10	19	38	1	3	1	72
		4.5%	8.5%	17.0%	.4%	1.3%	.4%	32.3%
	연애	15	34	89	1	9	3	151
		6.7%	15.2%	39.9%	.4%	4.0%	1.3%	67.7%
합계		25	53	127	2	12	4	223
		11.2%	23.8%	57.0%	.9%	5.4%	1.8%	100.0%
		$\chi^2=1.989$ $df=5$ $p=.851$						

*P<0.05, **P<0.01, ***P<0.001

<표 4-24> 에 의하여 친 인척 문제에 따른 결혼형식 부부갈등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중매 결혼에서 대화 17.0%, 회피 8.5%, 복종 4.5%, 폭력 0.4%, 무시 1.3%, 기타 0.4%로 나타났고, 연애결혼에서는 대화가 39.9%, 회피 15.2%, 복종 6.7%, 폭력 0.4%, 무시 5.4%, 기타 1.8%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연애결혼에서 대화가 가장 높게 갈등관리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P=0.851로 나타나 친 인척 문제에 따른 결혼형식에 대하여서는 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부부갈등 관리방법

<표 4-25>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소득수준 부부갈등 관리방법

		의사소통 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가정의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1		2			3
			.4%		.9%			1.3%
	101-200만원	2	12	26	1	2	2	45
		.9%	5.4%	11.7%	.4%	.9%	.9%	20.2%
	201-300만원	9	19	43		8	1	80
		4.0%	8.5%	19.3%		3.6%	.4%	35.9%
	301-400만원	3	23	28		4	1	59
		1.3%	10.3%	12.6%		1.8%	.4%	26.5%
	400만원 이상	2	11	20		2	1	36
		.9%	4.9%	9.0%		.9%	.4%	16.1%
합계		16	66	117	3	16	5	223
		7.2%	29.6%	52.5%	1.3%	7.2%	2.2%	100.0%

$\chi^2=109.047$ $df=20$ $p=.000$

*P<0.05, **P<0.01, ***P<0.001

<표 4-25> 에 의하여 의사소통문제에 따른 소득수준 부부갈등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100만원이하에서 폭력이 0.9%, 회피 0.4%, 101-200만원에서 대화가 11.7%, 회피 5.4%, 복종 0.9%, 폭력 0.4%, 무시 0.9%, 기타 0.9%, 201-300만원에서 대화가 19.3%, 회피 8.5%, 복종 4.0%, 무시 3.6%, 기타 0.4%, 301-400만원에서는 대화 12.6%, 회피 10.3%, 복종 1.3%, 무시 1.8%, 기타 0.4%, 400만원이상에서는 대화가 9.0%, 회피 4.9%, 복종 0.9%, 무시 0.9%, 기타 0.4%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에 따른 가정의 소득수준에서도 대화가 가장 높은 갈등관리 방법으로 나타났고,

회피와 복종의 순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P=0.000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표 4-26>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결혼기간 부부갈등 관리 방법

		의사소통 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결혼 기간	1-5년		7	12	1	2	2	24
			3.1%	5.4%	.4%	.9%	.9%	10.8%
	6-10년	7	14	44	1	7	2	75
		3.1%	6.3%	19.7%	.4%	3.1%	.9%	33.6%
	11-15년	4	26	29		5		64
		1.8%	11.7%	13.0%		2.2%		28.7%
	16-20년	3	8	22		1		34
		1.3%	3.6%	9.9%		.4%		15.2%
	21년 이상	2	11	10	1	1	1	26
		.9%	4.9%	4.5%	.4%	.4%	.4%	11.7%
합계		16	66	117	3	16	5	223
		7.2%	29.6%	52.5%	1.3%	7.2%	2.2%	100.0%

$\chi^2=25.363$ df=20 p=.188

*P<0.05, **P<0.01, ***P<0.001

<표 4-26> 에 의하여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결혼기간 부부갈등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결혼기간 1-5년에서 대화 5.4%, 회피 3.1%, 폭력 0.4%, 무시 0.9%, 기타 0.9%, 6-10년에는 대화가 19.7%, 회피 6.3%, 복종과 무시 3.1%, 기타 0.9%, 11-15년에는 대화가 13.0%, 회피가 11.7%, 무시 2.2%, 복종 1.8%, 16-20년에는 대화가 9.9%, 회피 3.6%, 복종 1.3%, 무시 0.4%, 21년이상 회피 4.9%, 대화 4.5%, 복종 0.9%, 폭력, 무시, 기타는 각각 0.4%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대화가 52.5%, 회피 29.6%, 복종, 무시가

7.2%로 나타났다. P= 0.188로 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동거형태 부부갈등 관리 방법

		의사소통 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동거 형태	시부모	2	4	8		2		16
		.9%	1.8%	3.6%		.9%		7.2%
	처부모		2	4		2		8
			.9%	1.8%		.9%		3.6%
	핵가족	12	56	96	3	12	4	183
		5.4%	25.1%	43.0%	1.3%	5.4%	1.8%	82.1%
	시댁식구		1	4			1	6
			.4%	1.8%			.4%	2.7%
	처의 식구	2	3	5				10
		.9%	1.3%	2.2%				4.5%
합계		16	66	117	3	16	5	223
		7.2%	29.6%	52.5%	1.3%	7.2%	2.2%	100.0%

$\chi^2=17.279$ df=20 p=.635

*P<0.05, **P<0.01, ***P<0.001

<표 4-27>에 의하여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동거형태 부부갈등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대화 3.6%, 회피 1.8%, 복종, 무시 0.9%, 처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대화 1.8%, 회피 0.9%, 무시 0.9%, 핵가족인 경우 대화가 43.0%, 회피 25.1%, 복종과 무시 5.4%, 기타 1.8%, 시댁식구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대화 1.8%, 회피 0.4%, 기타 0.4%, 처의 식구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대화 2.2%, 회피 1.3%, 복종 0.9%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 대화가 52.5%,로 가장 높았고, 회피 29.6%, 복종과 무시가 각각 7.2%로 나타났다. P=0.635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표 4-28>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결혼형식 부부갈등 관리 방법

		의사소통 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결혼 형식	중매	2 .9%	26 11.7%	35 15.7%	1 .4%	6 2.7%	2 .9%	72 32.3%
	연애	14 6.3%	40 17.9%	82 36.8%	2 .9%	10 4.5%	3 1.3%	151 67.7%
합계		16 7.2%	66 29.6%	117 52.5%	3 1.3%	16 7.2%	5 2.2%	223 100.0%

$\chi^2=5.028$ df=5 p=.412

*P<0.05, **P<0.01, ***P<0.001

<표 4-28>에 의하여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결혼형식 부부 갈등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중매결혼에서 대화가 15.7%, 회피 11.7%, 복종과 기타가 0.9%, 폭력이 0.4%, 무시 2.7%로 나타났고, 연애결혼에서는 대화가 36.8%, 회피 17.9%, 복종이 6.3%, 무시가 4.5%, 기타 1.3%, 폭력이 0.9%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에서 보면 대화가 4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회피가 24.7%, 복종이 16.6%로 나타나 대부분의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갈등 관리방법으로 3가지를 사용하고 있음이 나타났고, P=0.000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 문제에 따른 부부갈등 관리방법

<표 4-29> 성 문제에 따른 소득수준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성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가정의 소득	100만원 이하			1		2		3
				.4%		.9%		1.3%
	101-200만원	6	10	27		1	1	45
		2.7%	4.5%	12.1%		.4%	.4%	20.2%
	201-300만원	16	16	39	1	2	6	80
		7.2%	7.2%	17.5%	.4%	.9%	2.7%	35.9%
	301-400만원	9	17	27		1	5	59
		4.0%	7.6%	12.1%		.4%	2.2%	26.5%
	400만원 이상	6	12	16		1	1	36
		2.7%	5.4%	7.2%		.4%	.4%	16.1%
합계		37	55	110	1	7	13	223
		16.6%	24.7%	49.3%	.4%	3.1%	5.8%	100.0%

$\chi^2=49.834$ $df=20$ $p=.000$

*P<0.05, **P<0.01, ***P<0.001

<표 4-29>에 의하여 성문제에 따른 가정소득수준의 부부갈등 관리방법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에서 대화가 0.4%, 무시 0.9%, 101-200만원에서 대화가 12.1%, 회피가 4.5%, 복종이 2.7%, 무시와 기타가 0.4%, 201-300만원에서 대화가 17.5%, 회피 7.2%, 복종 7.2%, 기타 2.7%, 무시 0.9%, 폭력이 0.4%, 301-400만원에서는 대화가 12.1%, 회피가 7.6%, 복종이 4.0%, 무시가 0.4%, 기타 2.2%, 400만원 이상에서는 대화가 7.2%, 회피 5.4%, 복종이 2.7%, 무시와 기타가 0.4%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보면, 대화로 갈등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49.3%로 가장 높았고, 회피 24.7%, 복종이 16.6%로 나타나 대부분 3가지 경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P=0.000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성 문제에 따른 결혼기간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성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결혼 기간	1-5년	2	4	13		2	3	24
		.9%	1.8%	5.8%		.9%	1.3%	10.8%
	6-10년	12	16	41		2	4	75
		5.4%	7.2%	18.4%		.9%	1.8%	33.6%
	11-15년	14	18	25	1	2	4	64
		6.3%	8.1%	11.2%	.4%	.9%	1.8%	28.7%
	16-20년	4	11	18		1		34
		1.8%	4.9%	8.1%		.4%		15.2%
	21년 이상	5	6	13			2	26
		2.2%	2.7%	5.8%			.9%	11.7%
합계		37	55	110	1	7	13	223
		16.6%	24.7%	49.3%	.4%	3.1%	5.8%	100.0%

$\chi^2=16.225$ df=20 p=.703

*P<0.05, **P<0.01, ***P<0.001

<표 4-30>에 의하여 성 문제에 따른 결혼기간의 부부갈등 관리방법을 살펴보면, 1-5년에서 대화가 5.8%, 회피 1.8%, 복종과 무시가 0.9%, 기타 1.3%, 6-10년에서 대화가 18.4%, 회피 7.2%, 복종 5.4%, 무시 0.9%, 기타 1.8%, 11-15년에는 대화가 11.2%, 회피가 8.1%, 복종이 6.3%, 폭력 0.4%, 무시 0.9%, 기타 1.8%, 16-20년에는 대화가 8.1%, 회피가 4.9%, 복종이 1.8%, 무시가 0.4%, 21년 이상에서는 대화가 5.8%,

회피 2.7%, 복종이 2.2%, 기타 0.9%로 나타났고, 위의 연구 결과에서도 대화가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회피가 24.7%, 복종이 16.6%로 높게 나타났다. P=0.703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성 문제에 따른 동거형태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성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동거 가족	시부모	1	4	8	1	1	1	16
		.4%	1.8%	3.6%	.4%	.4%	.4%	7.2%
	처부모	1	2	5				8
		.4%	.9%	2.2%				3.6%
	핵가족	33	46	89		5	10	183
		14.8%	20.6%	39.9%		2.2%	4.5%	82.1%
	시댁식구	1	1	3		1		6
		.4%	.4%	1.3%		.4%		2.7%
	처의 식구	1	2	5			2	10
		.4%	.9%	2.2%			.9%	4.5%
합계		37	55	110	1	7	13	223
		16.6%	24.7%	49.3%	.4%	3.1%	5.8%	100.0%

$\chi^2=24.064$ df=20 p=.240

*P<0.05, **P<0.01, ***P<0.001

<표 4-31>에 의하여 성 문제에 따른 동거형태의 부부갈등 관리방법을 살펴보면,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대화가 3.6%, 회피 1.8%, 복종, 무시, 기타가 0.4%로 나타났고, 처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대화가 2.2%, 회피 0.9%, 복종이 0.4%, 핵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대화가 39.9%, 회피가 20.6%, 복종이 14.8%, 무시 2.2%, 기타 4.5%, 시댁식구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대화가 1.3%, 회피 0.4%, 복종 0.4%, 무시 0.4%, 처의 식구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대화가 2.2%, 회피가 0.9%, 복종이 0.4%,

기타가 0.9%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보면, 대화가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회피가 24.7%, 복종이 16.6%로 순으로 나타났고. P=0.240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성 문제에 따른 결혼형식의 부부 갈등 관리방법

		성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결혼 형식	중매	13 5.8%	17 7.6%	36 16.1%		2 .9%	4 1.8%	72 32.3%
	연애	24 10.8%	38 17.0%	74 33.2%	1 .4%	5 2.2%	9 4.0%	151 67.7%
합계		37 16.6%	55 24.7%	110 49.3%	1 .4%	7 3.1%	13 5.8%	223 100.0%

$\chi^2=.730$ df=5 p=.981

*P<0.05, **P<0.01, ***P<0.001

<표 4-32>에 의하여 성 문제에 따른 결혼형식의 부부갈등 관리방법을 살펴보면, 중매 결혼에서 대화가 16.1%, 회피 7.6%, 복종이 5.8%, 무시 0.9%, 기타 1.8%로 나타났고, 연애 결혼에서는 대화가 33.2%, 회피가 17.0%, 복종이 10.8%, 폭력이 0.4%, 무시가 2.2%, 기타 4.0%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보면 결혼형식에 따른 P=0.981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성 역할 문제에 따른 부부갈등 관리방법

<표 4-33> 성 역할 문제에 따른 소득수준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성역할 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3				3
				1.3%				1.3%
	101-200만원		15	27	1		2	45
			6.7%	12.1%	.4%		.9%	20.2%
	201-300만원	4	15	48	3	8	2	80
		1.8%	6.7%	21.5%	1.3%	3.6%	.9%	35.9%
	301-400만원	3	17	32	1	5	1	59
		1.3%	7.6%	14.3%	.4%	2.2%	.4%	26.5%
	400만원 이상	4	12	17	1	1	1	36
		1.8%	5.4%	7.6%	.4%	.4%	.4%	16.1%
합계		11	59	127	6	14	6	223
		4.9%	26.5%	57.0%	2.7%	6.3%	2.7%	100.0%

$\chi^2=18.602$ df=20 p=.548

*P<0.05, **P<0.01, ***P<0.001

<표 4-33>에 의하여 성 역할 문제에 따른 소득수준의 부부갈등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100만원이하에서 대화 1.3%, 101-200만원에서는 대화가 12.1%, 회피 6.7%, 폭력 0.4%, 기타 0.9%, 201-300만원에서는 대화가 21.5%, 회피 6.7%, 복종 1.8%, 폭력 1.3%, 무시 3.6%, 기타 0.9%, 301-400만원에서는 대화가 14.3%, 회피 7.6%, 복종 1.3%, 폭력 0.4%, 무시 2.2%, 기타 0.4%, 400만원이상에서는 대화가 7.6%, 회피 5.4%, 복종 1.8%, 폭력, 무시, 기타, 0.4%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대화가 57.0%로 가장 높게 나왔고, 회피 26.5%, 복종이 4.9%로 나타났고, P=0.548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성 역할 문제에 따른 결혼기간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성역할 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결혼 기간	1-5년		2	17	1	2	2	24
			.9%	7.6%	.4%	.9%	.9%	10.8%
	6-10년	4	19	42	3	5	2	75
		1.8%	8.5%	18.8%	1.3%	2.2%	.9%	33.6%
	11-15년	2	20	34	2	4	2	64
		.9%	9.0%	15.2%	.9%	1.8%	.9%	28.7%
	16-20년	3	9	20		2		34
		1.3%	4.0%	9.0%		.9%		15.2%
	21년 이상	2	9	14		1		26
		.9%	4.0%	6.3%		.4%		11.7%
합계		11	59	127	6	14	6	223
		4.9%	26.5%	57.0%	2.7%	6.3%	2.7%	100.0%
$\chi^2=15.620$ df=20 p=.740								

*P<0.05, **P<0.01, ***P<0.001

<표 4-34>에 의하여 성 역할 문제에 따른 결혼기간의 부부갈등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1-5년에서는 대화가 7.6%, 회피 0.9%, 폭력 0.4%, 기타 0.9%, 6-10년에서는 대화가 18.8%, 회피 8.5%, 무시 2.2%, 복종 1.8%, 폭력 1.3%, 기타 0.9%, 11-15년에서는 대화 15.2%, 회피 9.0%, 무시 1.8%, 복종, 폭력, 기타 0.9%, 16-20년에서는 대화가 9.0%, 회피 4.0%, 복종 1.3%, 무시 0.9%, 21년이 상에서는 대화가 6.3%, 회피 4.0%, 복종 0.9%, 무시 0.4%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P=0.740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성 역할 문제에 따른 동거형태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성역할 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동거 형태	시부모	1	4	8	1	2		16
		.4%	1.8%	3.6%	.4%	.9%		7.2%
	처부모		3	2		1	2	8
			1.3%	.9%		.4%	.9%	3.6%
	핵가족	9	47	109	5	9	4	183
		4.0%	21.1%	48.9%	2.2%	4.0%	1.8%	82.1%
	시대식구		3	2		1		6
			1.3%	.9%		.4%		2.7%
	처의 식구	1	2	6		1		10
		.4%	.9%	2.7%		.4%		4.5%
합계		11	59	127	6	14	6	223
		4.9%	26.5%	57.0%	2.7%	6.3%	2.7%	100.0%

$\chi^2=26.002$ df=20 p=.166

*P<0.05, **P<0.01, ***P<0.001

<표 4-35>에 의하여 성 역할 문제에 따른 동거형태의 부부갈등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대화가 3.6%, 회피 1.8%, 복종, 폭력이 0.4%, 무시가 0.9%로 나타났다. 처부모와 동거하는 대화가 0.9%, 회피가 1.3%, 무시 0.4%, 기타 0.9%, 핵가족에서는 대화가 48.9%, 회피 21.1%, 복종, 무시가 4.0%, 기타 1.8%로 나타났다. 시대식구와 동거하는 경우 대화 0.9%, 회피 1.3%, 무시 0.4%, 처의 식구 2.7%, 회피 0.9%, 복종, 무시가 0.4%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P=0.166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성 역할 문제에 따른 결혼형식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성역할 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결혼 형식	중매	6 2.7%	17 7.6%	42 18.8%	2 .9%	4 1.8%	1 .4%	72 32.3%
	연애	5 2.2%	42 18.8%	85 38.1%	4 1.8%	10 4.5%	5 2.2%	151 67.7%
합계		11 4.9%	59 26.5%	127 57.0%	6 2.7%	14 6.3%	6 2.7%	223 100.0%

$\chi^2=3.615$ df=5 p=.606

*P<0.05, **P<0.01, ***P<0.001

<표 4-36>에 의하여 성 역할 문제에 따른 결혼형식의 부부갈등 관리방법을 살펴보면, 중매결혼에서 대화가 18.8%, 회피가 7.6%, 복종 2.7%, 무시 1.8%, 폭력 0.9%, 기타 0.4%로 나타났고, 연애결혼에서는 대화가 38.1%, 회피가 18.8%, 무시가 4.5%, 복종과 기타가 2.2%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P=0.606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성격적 문제에 따른 부부갈등 관리방법

<표 4-37> 성격적 문제에 따른 소득수준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성격적 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가정의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1	1	1			3
			.4%	.4%	.4%			1.3%
	101-200만원	2	9	24	3	4	3	45
		.9%	4.0%	10.8%	1.3%	1.8%	1.3%	20.2%
	201-300만원	5	23	40	2	5	5	80
		2.2%	10.3%	17.9%	.9%	2.2%	2.2%	35.9%
	301-400만원	2	24	26	1	5	1	59
		.9%	10.8%	11.7%	.4%	2.2%	.4%	26.5%
	400만원 이상	6	9	19		2		36
		2.7%	4.0%	8.5%		.9%		16.1%
합계		15	66	110	7	16	9	223
		6.7%	29.6%	49.3%	3.1%	7.2%	4.0%	100.0%

$\chi^2=28.715$ df=20 p=.094

*P<0.05, **P<0.01, ***P<0.001

<표 4-37> 에 의하여 성격적 문제에 따른 소득수준의 부부갈등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에서는 대화, 회피, 폭력이 0.4%로 나왔고, 101-200만원에서는 대화가 10.8%, 회피 4.0%, 무시 1.8%, 폭력, 기타 1.3%, 복종이 0.9%으로 나왔다. 201-300만원에서는 대화가 17.9%, 회피 10.3%, 복종, 무시, 기타가 2.2%, 301-400만원에서는 대화가 11.7%, 회피 10.8%, 무시 2.2%, 복종 0.9%, 폭력, 기타 0.4%로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에서는 대화가 8.5%, 회피 4.0%, 복종 2.7%, 무시 0.9%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P=0.094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4-38> 성격적 문제에 따른 결혼기간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성격적 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결혼 기간	1-5년	2	4	12	1	2	3	24
		.9%	1.8%	5.4%	.4%	.9%	1.3%	10.8%
	6-10년	1	22	44	1	5	2	75
		.4%	9.9%	19.7%	.4%	2.2%	.9%	33.6%
	11-15년	5	23	26	3	4	3	64
		2.2%	10.3%	11.7%	1.3%	1.8%	1.3%	28.7%
	16-20년	2	10	19		2	1	34
		.9%	4.5%	8.5%		.9%	.4%	15.2%
	21년 이상	5	7	9	2	3		26
		2.2%	3.1%	4.0%	.9%	1.3%		11.7%
합계		15	66	110	7	16	9	223
		6.7%	29.6%	49.3%	3.1%	7.2%	4.0%	100.0%

$\chi^2=26.442$ df=20 p=.152

*P<0.05, **P<0.01, ***P<0.001

<표 4-38>에 의하여 성격적 문제에 따른 결혼기간의 부부갈등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1-5년에서 대화 5.4%, 회피 1.8%, 복종, 무시 0.9%, 기타 1.3%, 6-10년에서는 대화가 19.7%, 회피 9.9%, 무시 2.2%, 기타 0.9%, 복종 0.4%, 11-15년에서는 대화가 11.7%, 회피 10.3%, 복종 2.2%, 폭력, 기타 1.3%, 무시 1.8%로 나타났다. 16-20년에서는 대화 8.5%, 회피 4.5%, 복종 0.9%, 무시 0.9%, 기타 0.4%로 나타났다. 21년 이상에서는 대화가 4.0%, 회피 3.1%, 복종 2.2%, 무시 1.3%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도 P=0.152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성격적 문제에 따른 동거형태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성격적 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동거 가족	시부모	1	4	8	1		2	16
		.4%	1.8%	3.6%	.4%		.9%	7.2%
	처부모		3	3			2	8
			1.3%	1.3%			.9%	3.6%
	핵가족	13	56	88	6	15	5	183
		5.8%	25.1%	39.5%	2.7%	6.7%	2.2%	82.1%
시댁식구			6				6	
			2.7%				2.7%	
처의 식구	1	3	5		1		10	
	.4%	1.3%	2.2%		.4%		4.5%	
합계		15	66	110	7	16	9	223
		6.7%	29.6%	49.3%	3.1%	7.2%	4.0%	100.0%

$\chi^2=23.433$ df=20 p=.268

*P<0.05, **P<0.01, ***P<0.001

<표 4-39> 에 의하여 성격적 문제에 따른 동거형태의 부부갈등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대화가 3.6%, 회피 1.8%, 복종, 폭력이 0.4%, 기타 0.9%로 나타났다. 처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대화 1.3%, 회피 1.3%, 기타 0.9%, 핵가족에서는 대화 39.5%, 회피 25.1%, 무시 6.7%, 복종 5.8%, 폭력 2.7%, 기타 2.2%로 나타났다. 시댁의 식구와 동거하는 경우 대화 2.7%, 처의 식구와 동거하는 경우 대화 2.2%, 회피 1.3%, 복종, 무시 0.4%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P=0.268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성격적 문제에 따른 결혼형식의 부부갈등 관리방법

		성격적 문제						합계
		복종	회피	대화	폭력	무시	기타	
결혼 형식	중매	6 2.7%	20 9.0%	32 14.3%	4 1.8%	8 3.6%	2 .9%	72 32.3%
	연애	9 4.0%	46 20.6%	78 35.0%	3 1.3%	8 3.6%	7 3.1%	151 67.7%
합계		15 6.7%	66 29.6%	110 49.3%	7 3.1%	16 7.2%	9 4.0%	223 100.0%

$\chi^2=5.732$ $df=5$ $p=.333$

*P<0.05, **P<0.01, ***P<0.001

<표 4-40>에 의하여 성격적 문제에 따른 결혼형식의 부부갈등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중매결혼에서 대화가 14.3%, 회피 9.0%, 복종 2.7%, 폭력 1.8%, 기타 0.9%로 나타났고, 연애결혼 형식에서는 대화가 35.0%, 회피 20.6%, 복종 4.0%, 무시 3.6%, 기타 3.1%, 폭력 1.3%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P=0.333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부인의 교육수준과 직업, 결혼형태, 종교등이 갈등의 정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갈등관리로 대화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허윤정(1997)⁶⁴⁾, 박은아(1993)⁶⁵⁾,의 연구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가정의 소득수준이 갈등관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64) 허윤정(1996),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의사소통과 갈등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7.

65) 박은하(1993), “주부의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관리행동,”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80.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재경(1992),⁶⁶⁾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대부분의 부부들이 갈등관리방법으로 대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화의 방법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올바른 대화의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66) 김재경, 전제서, p. 61.

제5장 요약 및 결론

현대사회는 조직화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지위 향상은 가정의 많은 변화를 불러왔고, 그로 인한 가정의 갈등도 커졌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간의 내재된 갈등정도를 파악하고 잘 관리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며 상호성장의 기회를 주어 가정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 밝히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부부의 갈등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부갈등의 요인(친 인척 요인, 의사소통 요인, 경제적 요인, 성적 요인, 성격적 요인, 성 역할 요인)에 따라 부부간의 갈등관리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인구통계학적 변수(가정의 소득수준, 동거형태, 결혼형식, 결혼 생활기간)에 따라 부부갈등 문제에서 부부간의 갈등관리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상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준에 따른 부부갈등정도에서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경제적 요인에서 $*p < 0.05$ 로 나타났고, 성격적 요인에서 $**p < 0.01$ 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역할 요인에서 $**p < 0.01$ 로 나타나 부인의 교육수준과 갈등의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직업에 따른 부부갈등정도에서는 부인의 직업에 따라 성적인 요인에서 $*p < 0.05$, 성격적 요인에서 $**p < 0.01$ 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셋째, 결혼형식에 따른 부부 갈등정도에서 성적인 요인에 $*p < 0.05$ 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넷째, 종교에 따른 부부 갈등정도에서는 성적요인에서 $**p < 0.01$ 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다섯째, 부부갈등 관리방법에서는 대부분의 부부가 대화, 회피, 복종, 무시의 방법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있음이 나타났고, 남편과 부인의 갈등 관리방법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다.

여섯째, 인구 통계학적 변수(가정의 소득수준, 결혼기간, 동거형태, 결혼형식)에 따른 갈등 관리방법에서는 경제적 문제에서 가정의 소득수준에 $**p < 0.01$ 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고, 결혼형태에서 $*p < 0.05$ 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친 인척 문제에서 가정 소득수준에 $*p < 0.05$, 결혼기간에 $*p < 0.05$, 동거형태에 $**p < 0.01$ 로 나타나 친 인척 문제에서는 결혼형태만 제외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문제에서 가정의 소득수준에 $***p < 0.001$ 로 나타났고, 성문제에서 가정 소득수준에 $***p < 0.001$ 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부부갈등 정도에 크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대체로 경제적 수준이나, 교육 수준등, 직업의 안정, 핵가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갈등의 관리방법으로 대부분의 부부가 대화로 갈등을 관리하고 있음이 나타났는데, 전통적인 부부관계에서 보다는 보다 호전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 및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단순히 설문지법을 사용했기에 연구의 특성상 내적인 부분을 들어내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더 효과적인 연구의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면접이나, 관찰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부천시라는 제한된 공간을 가지고 있고 자녀를 둔 결혼한 이혼하지 않은 평범한 가정을 중심으로 연구조사가 이루어져서 갈등의 원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제한점이 있음으로 좀 더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부부들이 의사소통요인에서 대부분이 갈등을 느끼고 있었고, 갈등관리 방법으로 대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화의 방법이나, 기술의 부족,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 등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갈등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고보선(1996),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관리체계와 가계재정복지,” 한양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길미령(1993), “부부의 공동의사 결정시 내재된 갈등과 갈등관리 형태에 관한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1998),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남편의 인지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36(1), p. 100-116.
- 김순옥(1972), “부인의 취업이 부부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1993), 『한국가족의 갈등연구』, 중앙대학교 출판부.
- 김정옥(1985), “도시 부부의 갈등해결 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23권, 2호 pp. 91-110.
- 김재경(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1998),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 전남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1987), “결혼초기 부부의 갈등에 관한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1995), “주부의 화폐관리전략과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정현(1984), “고부간의 갈등,” 『한국가족관계에서의 갈등』, 한국심리학회, pp. 95-101.
- 박천수(1991), “가족구매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부의 역할구조에 관한

- 연구,” 한국외국어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하(1993), “주부의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관리행동,”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해경(1998), “도시주부의 가정 내 갈등과 우울감에 관한 연구,” 경남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경(1992), “부부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화순(1994), “부부의 갈등과 해소,” 『한국 가족의 부부관계』, 여성 한국사회연구회, p. 217.
- 송성자(1985),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송영자(1986), “부부간의 갈등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리나(1999), “효과적 가정관리 조건에 관한 연구-자원 유용성 및 의사 소통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병숙(1978),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족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10대 자녀를 둔 부부가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병숙 외(1983), “여성전문직 종사자의 가족 내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 창간호, pp. 27-41.
- 손석훈(1984), “갈등과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조직 갈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은희(1985), “도시주부의 갈등해결표출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혜선(2001), “도시주부의 부부간 의사효율성, 가정관리전략 및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정학회, 제19권 5호, p. 134.
- 양은희(1985), “도시 주부의 갈등해결표출에 관한 연구-폭력행동을 중심으로,” 효성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명숙(1979), “결혼 적응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가효(1976), “한국 도시가족의 고부갈등의 실태와 전망: 중류 APT 가족의 자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 외(1997), 『결혼과 가족』, 경희대학교 출판부.
- 이기숙(1985), “한국 가정의 고부갈등 발생원인에 대한 요인분석,” 부산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교(1985), “도시 주부의 권력구조와 갈등해결 표출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1998), “한국 도시인의 가치 지향성 및 생활관리전략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1), pp. 15-31.
- 이정연(1982),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98), “갈등원천 및 갈등관리 유형에 따른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집단간 갈등을 중심으로,”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외(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 : Deacon & Firebaugh의 체계적 접근법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 13(3), pp. 156-169.
- 임희규(1979), “가정생활에서의 주부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서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우근(1994), “갈등의 이론적 접근방법과 갈등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성률(1988), “가계의사결정 유형에 관한연구,”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경애(1989), “종교 유무가 부부간의 갈등해소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1994), “가족 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 방안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 제12권 2호, pp. 140-152.
- 허윤영(1988), “남편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갈등처리와의 관계,” 효성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oulding, K. E., “A Pure Theory of Conflict Applied to Organizations,” in R. L. Kahan and K. E. Boulding, eds, *Power and Conflict in Organizations* Basic Books, 1964, p. 138.
- Coser, L. A., *Continuity in the Study of Social Conflict*, New York, Free Press, 1967, Chap, 1.

- Coser, L. A., "Conflict : SocialAspect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3
 New York : The Macmillan co. & The Free Press, 1967,
 p. 235.
- Dahrendorf, R.,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p.
 135.
- Fink, C. F., "Some Conceptual Difficulties in the Theory of Social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7,
 No. 4, 1968, p. 416
- French & Raven, "The Bases of Social Power," D. Cartwright
Studies in Social Power, a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9, pp. 118-149.
- Kitson, G. C & M. B. Sussman, "Marital Complaints, Demographi
 Characteristics, and Symptoms of Mental Distress in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4,
 1982, pp. 87-101.
- Kipnis, O and S. M. Schmidt, "An Influence Perspective on
 Bargain within Organiz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Bargain within Organizations Conference*, Bosten
 October , 1982, pp. 15-17.
- Luthans, F. *Organization Behavior*, New York, Mcgrow-Hill, 1985,
 p. 386.
- March, J. G and H. A. Simon, *Organizations*, New York, John
 Wiley, 1958, p. 112.
- Mondy, R. W and S. R. Premeaux, *Management*, 6th ed., Allyn &
 Bacon, 1993, p. 405.
- Nelson, M. C., "The Resolution of Conflict In Joint Purchase
 Decisions by Husbands and Wives a Review and
 Empirical Test," *Advances in Commuter Research*,
 Vol. 15, pp. 436-441.
- Rue, L. W and L. L. Byars, *Management*, 6th ed., Irwin, 1992, p. 402.

- Sprey, J. "The Family as a System in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1969, pp. 669-706.
- "On the Management of Conflict i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ember, 1971. pp. 722-731.
- Family Power and Process : Toward a Conceptual Integration," in Cromwell. R. H. and Olson. D. H., eds, *Power in Families*, New York ; Hasted Press, 1974. pp. 61-79.
- "Conflict Theory and Study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 Free Press, 1981, in Burr W. R. & Hill,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2, p. 134.
- Straus, M. A., "Measuring Intra 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1, 1979, pp. 75-95.
- Simon, H. A. *Administrative Behavior : A Study of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2nd, ed, New York : Macmillan, 1957, pp. 129-130.
- Stinnett, N. Walters, J. and Kaye, E., *Relationships in Marriage and the Family*, Macmillan Pub., 1984, pp. 187-190.
- Strong, B., Devault, C., Suid, M and Reynolds, R. *The Marriage and Family Experience*, West Pub., 1983, pp. 293-294.
- Thomas, K. W. "Conflict and Management,"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 Rand McNally, 1976, pp. 889-935.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어려운 부탁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조사는 부부들간에 발생하는 부부갈등을 연구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행복하고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이끌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답해 주시는 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기록하시는 모든 사항은 정답이나 문항들간의 우열도 없으며, 각 가정에서도 이상으로 생각하시는 부부관계보다 실제로 겪게되는 갈등을 한 문항도 빠뜨림 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완전히 익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연구목적에만 이용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 3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김 회 숙

I.다음은 부부들이 흔히 느끼는 갈등의 내용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현재 느끼시는 갈등의 정도를 한문항도 빠짐없이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매우 많음	대체로 있는편	보통	거의 없는편	전혀 없음
1	배우자의 피로,늦은 귀가등으로 대화시 간이 부족하다.	5	4	3	2	1
2	배우자는 가정일보다 바깥일(직장,각종 모임)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가정에 소홀하고 관심이 없다.	5	4	3	2	1
3	배우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 지 않고 자기방식으로만하려는 지배적 인 성격이라 잘 맞지 않는다.	5	4	3	2	1
4	배우자는 비난을 잘하고 신경질적인 성격이다.	5	4	3	2	1
5	배우자와 집안청소,가구파손,보수등의 가사보조문제로 갈등이 생긴다.	5	4	3	2	1
6	한달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적어 생활 하기에 부족하다.	5	4	3	2	1
7	부부중 어느 한쪽이 불감증이다.	5	4	3	2	1
8	배우자는 어느 한쪽의 가족에게만 너 무 잘한다.(시부모가족,처부모가족)	5	4	3	2	1
9	배우자와 성욕정도가 잘 맞지 않는다.	5	4	3	2	1
10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는 다.	5	4	3	2	1
11	배우자는 대화도중 무시하거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 갈등이 생긴다.	5	4	3	2	1
12	배우자가 단독으로 돈을 관리하려 한 다.	5	4	3	2	1
13	친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가 조성되지 않아 대화가 어렵다.	5	4	3	2	1
14	배우자와 자녀의 교육등으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	5	4	3	2	1
15	배우자와의 성행위에서 자주 오르가즘 (절정감)을 경험하지 못한다.	5	4	3	2	1

		매우 많음	대체로 있는편	보통	거의 없는편	전혀 없음
16	배우자는 묻는 말에 대답을 잘 안하고 솔직하지 못하다.	5	4	3	2	1
17	친지나 친척의 경조사 축의금이나 부의금에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	5	4	3	2	1
18	배우자는 질투심이 많고 사생활에 간섭이 심하다.	5	4	3	2	1
19	배우자의 금전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무절제하게 지출한다.	5	4	3	2	1
20	배우자의 피로나 기타이유(늦은귀가, 음주) 등으로 성관계가 적다.	5	4	3	2	1
21	자녀를 돌보는 일이나 자녀에게 관심이 적다.	5	4	3	2	1
22	배우자의 관심있는 대화의 주제가 달라 대화가 잘안된다.	5	4	3	2	1
23	배우자와 생활비나 용돈등에 대한 지출이나 용도에 대한 의견이 잘 맞지 않는다.	5	4	3	2	1
24	배우자는 시부모(처부모)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본인을 변호해 주지 못한다.	5	4	3	2	1
25	대화도중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듣지 못한 척 탄전을 피운다.	5	4	3	2	1
26	배우자가 시부모(처부모) 친척관계등에 소홀하다고 느끼므로 갈등이 생긴다.	5	4	3	2	1
27	부부간의 키스나 애무같은 애정 표시가 부족하다.	5	4	3	2	1
28	남편의 일 부인의 일을 구분하면서도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5	4	3	2	1
29	배우자는 이해심이 부족하고 너그럽지 못하여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	5	4	3	2	1
30	배우자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 부단한 성격이라서 잘 맞지 않는다.	5	4	3	2	1
31	배우자는 시집식구(처가식구)보다 친정식구(시집식구)와 더 가까이 지낸다.	5	4	3	2	1
32	배우자는 자상하지 못하고, 매사에 무관심한 성격이라서 부부간에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5	4	3	2	1

		매우 많음	대체로 있는편	보통	거의없 는편	전혀 없음
33	시부모(처부모)친정부모나 시댁식구(처가식구,친정식구)를 도와 주거나 부양문제로 배우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	5	4	3	2	1
34	배우자가 성적요구(성관계 제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5	4	3	2	1
35	시부모(처부모),친가족들이 집안일에 간섭하고 잔소리한다.	5	4	3	2	1
36	배우자는 하루일과 중에 있었던 일에 (남편은 밖의일, 아내는 집안일 또는 직장일)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	5	4	3	2	1

Ⅱ. 다음은 갈등관리 방법을 조사하려는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 (1 - 6)은 다음의 보기에서 골라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 보 기 >

1	2	3	4	5	6
주로 배우자의 의견에 따르는 편이다.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않아 대충 처리한다.	서로간에 상의 해서 해결하려는 편이다.	서로에게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등 폭력을 사용하는 편이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	기타

1.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1	2	3	4	5	6
---	---	---	---	---	---

*기타 내용은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2. 시부모 (처부모)등 친인척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1	2	3	4	5	6
---	---	---	---	---	---

*기타 내용은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보 기>

1	2	3	4	5	6
주로 배우자의 의견에 따르는 편이다.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대충 처리한다.	서로간에 상해 해결하려는 편이다.	서로에게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 등 폭력을 사용하는 편이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	기타

3. 부부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의견이 대립 되었을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1	2	3	4	5	6
---	---	---	---	---	---

*기타내용은자세히적어주십시오.()

4. 배우자의 성(sex)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십니까?

1	2	3	4	5	6
---	---	---	---	---	---

*기타내용은자세히적어주십시오.()

5. 배우자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잘 이행하지 못해 갈등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하십니까?

1	2	3	4	5	6
---	---	---	---	---	---

*기타내용은자세히적어주십시오.()

6. 배우자의 성격적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1	2	3	4	5	6
---	---	---	---	---	---

*기타내용은자세히적어주십시오.()

*다음은 통계적 분석을 위해 선생님께 관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본인의 연령은? ① 30세이하() ② 31-35세() ③ 36-40세()
④ 41-45세() ⑤ 45세이상()
3. 본인의 최종학력은?
① 국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초.전문대졸()
⑤ 대학졸() ⑥ 대학원이상()
4. 본인의 직업을 아래 번호에서 고르시오. ()

- ① 대기업주, 자본가, 정부의 최고관리
- ② 전문직(과학자,엔지니어, 의사,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판검사: 대학교수)
관리직(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회사원)
- ③ 사무직(계장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회사원)
기술직(교수, 수의사, 약사, 한의사, 의료보조원,
종교관계종사자, 체육인, 연예인)
- ④ 자영상공업(1인 이하의 도.소매업이나 가내수공업)
자영기술자, 자영기능인(수리업, 이.미용업, 양장업,
개인택시업)
- ⑤ 피고용기능공(공장 숙련공, 이용, 미용, 운전등
서비스업, 피고용인)
- ⑥ 단순노무직(비숙련공, 청소부, 수위, 파출부)
- ⑦ 주부, 무직

5. 선생님 가정의 한달 총 수입은 어느정도입니까? (부부의 소득을 보너스, 재산소득을 합해서 월 평균액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① 100만원이하 () ② 101-200만원() ③ 201-300만원()
 ④ 301-400만원() ⑤ 400만원이상()
6. 결혼생활기간은? ① 1-5년()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이상()
7.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은?
- ①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② 처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③ 핵가족이다.() ④ 시댁의 식구 (시동생 혹은 시누이)와 살고 있다.() ⑤ 처의 식구들과 살고 있다.()
8. 가지고 계신종교는?
-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 ⑤ 무교()
9. 결혼형식은? ① 중매결혼 () ② 연애결혼 ()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Conflict Management in Marriage

Kim, Hee Sook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Welfare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nflicts between the husbands and wives, review their causes, and survey how they handle the conflicts and thereby, provide some basic data useful for development of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for a happy family life and better quality of life.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are there differences of conflicts between husbands and wives depending on their demographic variables?

Second, are there differences of conflict management depending on factors of conflict (relative, communication, financial, sexual, personality, role of sex)?

Third, are there differences of conflict management depending on demographic variables (family income, family composition, motive for marriage, length of marriage)?

In order to find the answers to above questions, the husbands and

wives with a child or children living in Buchon-city were sampled for questionnaire survey. 223 people (65 husbands and 158 wives) responded to the survey.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was analyzed with Cronbach's α .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for frequency, percentage, means, T-test and one-way ANOVA for significance levels and cross analysis for differences among conflict managem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

1.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of conflict depending on demographic variables,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conflict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wives' academic backgrounds and jobs, and that the conflict due to motive for marriage or religion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sexual factor.

2. In terms of conflict management, most of the husbands and wives relied on dialogue, evasion, obedience and ignorance. There was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conflict management between the husbands and wives.

3.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flict management depending on demographic variables (family income, length of marriage, family composition, motive for marriage), it was found that the conflict due to financial problem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family income level and motive for marriage, and that the conflict due to relative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family income level, length of marriage and family composition.

On the other hand, the conflict due to communication problem

wives with a child or children living in Buchon-city were sampled for questionnaire survey. 223 people (65 husbands and 158 wives) responded to the survey.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was analyzed with Cronbach's α .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for frequency, percentage, means, T-test and one-way ANOVA for significance levels and cross analysis for differences among conflict managem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

1.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of conflict depending on demographic variables,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conflict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wives' academic backgrounds and jobs, and that the conflict due to motive for marriage or religion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sexual factor.

2. In terms of conflict management, most of the husbands and wives relied on dialogue, evasion, obedience and ignorance. There was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conflict management between the husbands and wives.

3.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flict management depending on demographic variables (family income, length of marriage, family composition, motive for marriage), it was found that the conflict due to financial problem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family income level and motive for marriage, and that the conflict due to relative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family income level, length of marriage and family composition.

On the other hand, the conflict due to communication problem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family income level, as well as the conflict due to sexual problem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family income level.